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설명서 및 상품설명서, 약관, 청약, "증권투자보유금" 보유상황, "신용등급" 확인  
 >신용등급(한국신용평가)은 "우" 등급, "우" 등급 이상 또는 "우" 등급 이상 보유 시 "우" 등급으로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 "AAA/A/A- B/B/B- C/C- D" 등급으로 투자시 적용. 구분

제3223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올해 세수펄크 59兆 '역대 최대' 2

尹 '유엔총회 참석' 출국...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5

## 골든타임 놓칠라... 정쟁이 삼킨 韓경제

### 추경호 "2027년까지 천리안 3호 위성 개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퍼켓시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단식·검찰 영장 청구 계기 민주당, 상임위 보이콧 對與투쟁**

**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고조 불구 국회 마비에 주요경제 현안 제동**

병원에 이송됐다. 성모병원에서 긴급치료를 받은 뒤 이 대표는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재이송됐다. 이 대표는 단식 지속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준비가 걸렸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장기 단식·사법 리스크에 따른 여야의 대치 국면이 사실상 '국회 울스톱'으로 이어지면서 정국회 내 주요 경제법안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시기인 만큼 국회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기사 3·5면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

△기업승계지원법 등이, 산자위에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이, 정무위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이 기업 승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기재위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당정이 법제화를 추진 중인 국가자원안보법은 산자위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는 등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경로를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 법안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단결시키는 단계"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중도층 흡수를 위해 슬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정대환 기자 vishalist@·김이현 기자 spes@

정부가 통신과 항법 보정 등에 활용할 복합 통신위성 '천리안 3호'를 2027년까지 개발한다. 또 개인별 학습수준·속도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는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관련기사 3·18면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운항선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통신 핵심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내 연구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2027년 12개소로 늘리는 등 핵심인력 확보를 지원한다"면서 "통신과 항법보정 등에 활용할 복합 통신위성 '천리

### AI 디지털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진 바이오 투자, 하반기분부터 稅공제

안 3호'를 2027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위성통신 시장 확대 과정에서 통신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혼신을 상시 탐지·대응하는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또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해외 위성통신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생산시설 고도화를 지원한다.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활용을 가속화하는 등 신산업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듀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교육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국민 10명 중 9명 "장례비용 부담스럽다"



### 부담되는 '부조 문화'

국민 10명 중 9명은 장례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조 문화는 10명 중 3명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관련기사 4면

18일 본지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는 한국의 장례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부조 문화는 29.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은 51.3%, '긍정적'은 19.6%였다. 부조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조문객 부담·장례비 거품 조장 등 응답자 29% "부조 문화 부정적" 상주 문화엔 "모든 자녀가 맡아야"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29.9%)', '부조 문화가 장례 비용 거품을 조장하기 때문(26.1%)',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장례의 본질이기 때문(23.4%)'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절반 이상이 '행복을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는 상부상조의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52.0%)'을 이유로 들었다. 부조금액은 5만 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다. 10만 원은 37.3%였다.

상조보험 가입률은 20.8%에 머물렀다. 상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주된 이유로 '미리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0.5%)'라고 답했다.

적당한 장례 기간은 '삼일장(65.9%)', 바람직한 장례 방식은 '화장 후 자연장(39.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장례 방식을 정하는 주체는 '본인(45.7%)'과 '가족 간 협의(45.3%)'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상주 문화에 대해서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가 상주가 되어야 한다(40.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장자가 상주를 맡는 전통적 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은 17.9%에 머물렀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장례 기간·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장례 기간·방식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삼일장 희망률은 49.7%, 자연장 희망률은 43.1%였다. 전반적으로 전통적 장례

기간·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본인의 장례는 이보다 간소하게 치르길 희망하는 경향을 보였다. 희망하는 임종장소로는 '자택 등 주거지'가 39.7%로 가장 많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30.1%였다. 희망 장례 장소는 '장례식장(65.8%)', '고인의 생전 주거지(18.4%)', '봉안·매장지(10.4%)', '상주의 주거지(3.5%)' 순이었다. 장례식 의미로는 '고인을 애도하는 의미(64.6%)'라는 답변이 대다수였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의미'는 23.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웹 조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포인트다.

김지영 기자 jye@

〈前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경협 첫 행보 ‘현충원 결의’… “韓, G7 도약 앞장서겠다”

## 한국경제인협회 공식 출범

“초심으로” 55년전 이름으로 변경 국가경제 최우선 가치로 새출발 ‘전 印尼대사’ 김창범 부회장 선임 정책 개발·글로벌 싱크탱크 박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한국경제인협회’로 공식 출범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한경협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면서 55년 만에 이름을 바꾸게 됐다. 신임 상근 부회장으로는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선임했다.

류진 회장은 이날 한경협 출범 첫 공식 행보로 김 상근부회장 등 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1961년 ‘한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체가 출범했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신을

### 한국경제인협회 개요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회원사 현황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계열사 포함 430여 곳
주요 변화	- 목적 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ESG 등 지속가능성장 사업 추가 - 윤리위원회 설치 정관에 명시 - 윤리헌장 채택
향후 과제	- 윤리위원회 구성 -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하이브 등 회원사 가입 범위 확대 - 구체적 혁신안 마련 등 정경유착 근절안 마련

류진(왼쪽) 한국경제인협회장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기 위해 김창범 상근부회장(오른쪽)과 걸어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되새기고 새 출발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는 의미다.

류 회장은 현충탑에서 묵념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위국헌신을 받들어 G7(주요 7개국)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한국 경제 글로벌 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류 회장은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남덕우, 박태준(포스코 창업자)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한경협은 이번 참배에 대해 “70여년 전 경제황무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고 자유시장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운 분들을 기리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은 순국선열과 선배 경제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은 명칭 변경을 기념하기 위해 표지석 제막식도 개최한다.

일련의 공식활동을 시작으로 한경협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같은

한국형 싱크탱크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류 회장은 최근 전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 파트너 40여 개 기관에 취임 인사서한을 보내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한·미·일 3국 경제협력의 체’를 창설하고 경제계 간 공조를 제도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상근 부회장으로 외교관 출신인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선임한 것도 이 같은 활동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경협의 혁신 의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

리는 여전하다. 한경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흥역을 치렀다.

한경협에 복귀하겠다고 결정 내린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도야직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한경협 쇄신 내용을 지켜본 뒤 회비 납부나 회장단 가입 등 실질적 참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하이브 등 한경협의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회원 가입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 이들 기업의 가입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한경협이 새롭게 출범하고 쇄신한다고 하니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류 회장은 “과거에 잘못했으니 축구로 보면 옐로카드(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경협 회장으로서는 위국헌신과 기업보국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대에서 G7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 ‘400조→341조’ 또 빛나간 국세 전망... ‘59조 세수펄크’ 역대 최대

###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기업 실적 줄며, 법인·소득세 급감 3년째 두 자릿수 오차 ‘신뢰성 타격’

올해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10% 이상을 넘

기면서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주요 재정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기존 전망치인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세수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 규모다. 2022년 국세수입(395조9000억 원)으로는 54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국세수입 감소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애초 예상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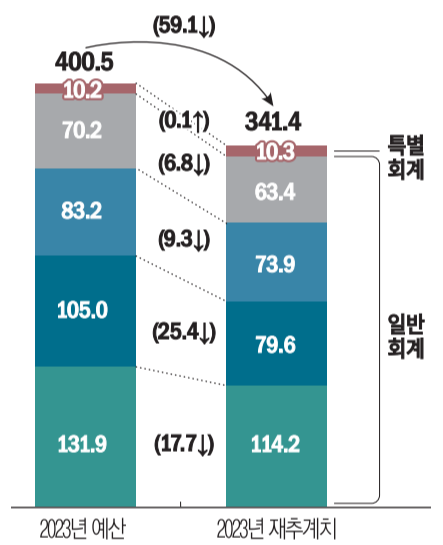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도세 등 소득세 수입은 기존 전망치인 131조9000억 원에서 114조2000억 원, 법인세는 105조 원에서 79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83조2000억 원에서 73조9000억 원으로 각각 17조7000억 원, 25조4000억 원, 9조3000억 원 줄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3년 연속 10% 이상의 세수 오차율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 ■ 기타



※ 출처: 기획재정부

We Songpa

# 제23회 한성백제문화제

The 23rd Hanseong Baekje Cultural Festival

가을 넘어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

2023. 9. 22.(금) ~ 24(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다시 뛰는 승패

정말인 혁신의 구름

| 주최 | 송파구

| 주관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후원 | 서울특별시 KSPPO 롯데월드타워 우리은행

# 이번 주 '슈퍼 36시간' ... G20 절반, 기준금리 정한다

## 글로벌 경제 운명의 시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쁜 36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쇄도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세계 경제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회의의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일본은행(BOJ)에 이르기까지 36시간 동안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예정이다.

주요 20개국(G20)의 절반에 가까운 국가가 20~22일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20일 연준의 FOMC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회의 결과 발표가 예정됐다.

이번 통화정책 결정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으며, 최근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수요 위축,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 상승) 우려 등 복잡한 경제 상황에 중앙은행들의 경로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연준은

美中日, 금리 '동결' 전망 우세  
숨고른 美 연내 추가 인상 가능

유럽, 경기 침체에도 물가 올라  
금리 줄인상, 당분간 긴축 무계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소비지출 위축, 고용시장 냉각 등 인플레이션 둔화 촉진 요인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스투어트 폴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되 금융 상황이 완화되지 않도록 추가 긴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균형 잡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예상보다 뜨거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준이 11~12월에는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경제학 석학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응답자가 연준이 앞으로 1~2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방송 역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에서는 금리 인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21일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국립은행(SNB)도 또한 번의 금리 인

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역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금리를 5%p 더 올려 약 3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중국은 경기둔화에 허덕이고 있지만, 막대한 부채로 당국이 움직이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20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은행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내놓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우에다 총재는 9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변호선 기자 hsbyun@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글로벌 중앙은행 금주 주요 일정(현지시간 기준)

\* 출처: 블룸버그

중앙은행	정책 결정 일정	예상
미국 연준	20일 FOMC 마치고 성명 발표	금리 동결, 이후 전망에 초점
브라질 중앙은행	20일 금리 결정	금리 0.5%p 인하
중국 인민은행	20일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금리 동결
영국 BOE	21일 통화정책회의	금리 0.25%p 인상
스위스 SNB	21일 금리 발표	마지막 금리 인상 단행 전망
튀르키예 중앙은행	21일 금리 발표	금리 5%p 올려 30%로
일본은행(BOJ)	22일 통화정책 결정회의	기준 정책 유지

## 첨단 클러스터에 2.2조원 투자 벤처캐피털 외부출자 한도 늘려

<40→50%>

### 정부, 첨단산업 육성 후속조치

내년 상반기 바이오 단지 신규 지정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4배로 증액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원, 향후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에 내년 1213억원, 향후 5년간 총 5432억원을 투자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원 유치를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첨단의료기기 R&D, 창업·네트워킹 인프라 조성 등에 내년 1193억원, 향후 5년간 총 4587억원,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 등에 내년 1650억원, 향후 5년간 총 1조 2383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제한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클러스터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털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올해 10월 신속히 개정한다. 3대 주력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양자, 원자력, 우주 등의 분야에서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R&D에 내년 1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파견 종료 후에도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요건도 완화한다. 보스톤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톤-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투자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장례 관련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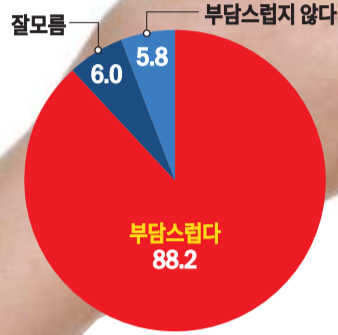
- 조사기관: 리얼미터(본지 의뢰)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 앱·웹 조사
- 조사기간: 2023년 7월 1~7일

# 삼가 고인의 명복만 빌면 안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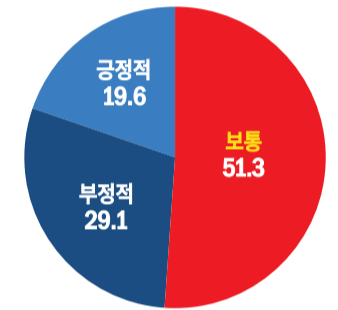
받는 이도, 주는 이도 부담되는 '부조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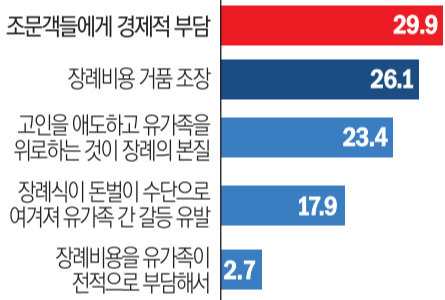
장례비용 부담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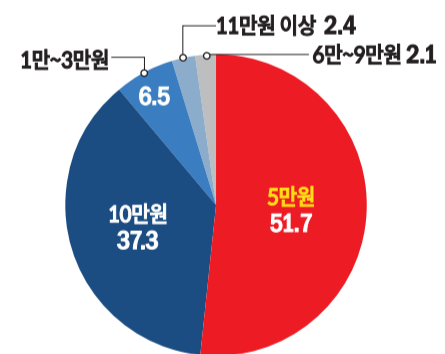
한국의 부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부조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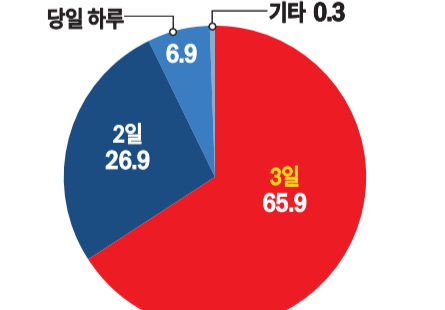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조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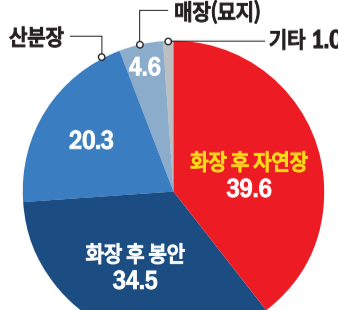
\* 평균 부조금액: 7만3900만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장례기간 (단위: %)



\* 당일 하루: 봉안·매장 절차로 장례식을 대체  
2일: 하루 장례식 후 봉안·매장  
3일: 일반적인 삼일장

바람직한 장례방식 (단위: %)



\* 산분장: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림

우리나라 국민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의 장례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부의금(평균)은 7만3900원이었다.

18일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조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대 이하에서 16.9%, 30대에서 23.6%, 40대에서 22.6%에 머물렀으나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39.4%, 38.1%에 달했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와 초대졸이 각각 24.6%, 25.2%였으나,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은 각각 31.1%, 37.1%였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오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조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부조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연령대별로 달랐다. 부조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40대 이하에선 '부조 문화가 장례 비용 거품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50대 이상에선 '부조 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에게 부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적정 부조 금액은 연령대가 오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적정 부조 금액에 대한 평균값이 20대 이하는 8만8100원, 30대는 7만9600원, 40대는 7만1000원,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만7000원, 6만8500원이었다. 특히 50대 65.7%는 5만원 이하를 적정 금액으로 봤다.

장례식 의미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고인 애도'라는 답변이 많았으나, 비율은 연령대·교육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9.9%, 67.8%였는데, 20대 이하의 57.6%에 머물렀다. 대신 '유가족 위로'란 답변이 늘어났다. 30대는 이 비율이 29.1%로 60대 이상(18.8%)보다 10.3%포인트(p) 높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인 애도'라는 답변이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복도에 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줄고, '유가족 위로'라는 답변이 늘었다.

바람직한 장례 방식으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화장 후 봉안(납골)시설 안치', 높을수록 '화장 후 자연장' 응답이 많았다. 60대 이상은 49.0%가 자연장, 20대 이하의 48.3%가 봉안시설 안치를 뽑았다. 매장(묘지)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8.1%로 60대 이상(2.9%)보다 5.2%p 높았다.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연령대다. 교육 수준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거주 지역이나 주거 형태, 가족 형태, 고용·종사상 지위에 따른

본지, 1000명 대상 '장례문화 설문조사' 적정 부조금 '7만3900원'... 젊을수록 ↑ 20대 17%·50대 39% "부조문화 부정적" 나이 들수록 "장례식 경제 부담 ↑" 호소

인식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가 높다는 건 장례식장 방문 경험이 많고, 본인의 장례도 가까워졌음을 뜻한다. 부조 문화, 봉안·매장은 가족·지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장례 방식이다. 부조 문화, 봉안·매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건 장례를 '특별한 일'보다는 '일상'으로, '남의 일'보다는 '내게도 다칠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장례식장 방문 경험이 적다. 본인의 장례도 먼 미래다. 직접경험보다 간접경험을 토대로 인식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상주 문화와 관련해서 성별·교육 수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지금처럼 배우자나 장자(또는 장손)가 상주를 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남성의 24.5%가 동의했지만, 여성은 11.3%만 동의했다.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가 상주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여성의 동의율이 47.7%로 남성(32.2%)보다 15.5%p 높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와 초대졸에서 각각 21.3%, 22.1%가 '장자 상주'에 동의했지만,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은 이 비율이 각각 15.9%, 13.3%에 머물렀다. 특히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에선 절반 이상이 '상주를 정하는 데 가족관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시대적 상주 문화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가족 형태별로는 3대 이상 가구에서 34.8%가 '장자 상주'에 동의했다. 2대 이하 가구에선 이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jye@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부모님께 삼일장 적당하겠지만... 내 장례는 1~2일 희망”

한국의 장례 문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꽤 보수적이다. 여전히 삼일장과 화장 후 자연장 또는 봉안(납골)시설 안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2명 중 1명이 본인의 장례 기간으로 1~2일을 희망한다. 장례 방식으로는 10명 중 7명이 자연장·산분장을 바란다. 누적된 경험·학습 결과로 전통적 장례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자식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장례 문화는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18일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9%는 적당한 장례 기간으로 3일을 꼽았다. 2일은 26.9%, 1일은 6.9%였다. 적당한 장례 기간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장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희망하는 장례 기간을 묻는 문항에선 3일이 49.7%로 줄었다. 2일은 32.9%, 1일은 16.9%였다. 교차분석 결과, 적당한 장례 기간으로 3일을 선택한 응답자 중 25.3%는 희망 장례 기간 문항에서 1~2일로 선택지를 옮겼다.

장례 방식 문항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바람직한 장례 방식 순위는 '화장 후 자연장(수목형·화초형·잔디형 등)' 39.6%,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34.5%, '화장 후 산분장(유골 가루를 산·강·바다 등

66% "전통적 삼일장 문화 바람직" 하지만 2명 중 1명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싫어" 임종장소 40% "자택"... 요양시설 7% 그쳐

에 뿌림)' 20.3%, '매장(묘지)' 4.6% 순이었다. 반면, 희망하는 장례 방식에선 자연장이 43.1%로 압도적 1위였다. 봉안시설 안치는 24.9%, 산분장은 27.7%에 머물렀다. 매장은 3.9%로 줄었다.

바람직한 장례 방식 문항에서 봉안시설 안치를 선택했던 응답자 중 33.9%는 희망하는 장례 방식에서 자연장, 산분장으로 옮겨갔다. 매장을 바람직한 장례 방식으로 꼽았던 응답자는 38.7%가 희망하는 장례 방식에서 다른 장례 방식을 선택했다. 자연장, 산분장은 장례 비용,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봉안시설 안치, 매장에 비해 자식 등 유가족의 부담이 적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전통적 장례 기간·방식을 바람직하다고 여겼지만, 이 중 상당수는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보다 간소한 방식으로 장례가 되길 희망했다.

특히 장례 방식 문항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바람직한 장례 방식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봉안시설 안치를 1순위(각각 48.3%, 41.8%)로 꼽았으나, 40대 이상은 자연장을 1순위로 꼽았다. 60

대 이상은 자연장 응답률이 49.0%였다. 희망하는 장례 방식에서도 20대는 36.0%가 봉안시설 안치를 뽑았지만,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자연장을 가장 선호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봉안시설 안치, 매장을 기피하고 자연장, 산분장을 선호하는 건 자식 등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례식은 '남의 일'에서 '내 일'에 가까워진다. 저연령대에 비해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다.

희망하는 임종 장소 문항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자신의 임종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희망하는 장소는 어디냐'는 질문에 39.7%가 '자택 등 주거지'를 꼽았고 '병원 입원실 등 의료기관'(30.1%),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7.3%) 등으로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응답자 45.3%가 '자택 등 주거지'라고 답한 것을 비롯해 30~50대에서도 '자택 등 주거지'가 1위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40.6%가 '병원 입원실 등 의료기관'을 선택했다. 희망하는 장례 장소 문항에선 장례식장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60대 이상에선 그 비율이 72.0%에 달했다. 20대 미만과 30대는 장례식장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고인의 생전 주거지'란 응답이 각각 22.1%, 24.2%로 높은 편이었다.

김지영 기자 jye@

# 尹, 30개국 이상 릴레이 양자회담... '부산엑스포' 총력전

## 내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4박 6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교류 관련 메시지를 내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북러 군사 교류 움직임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할지 여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군사·경제 협력'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한 데 대한 추가 대응이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에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교류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전 A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



## 북-러 군사 교류 움직임 대응해 국제사회 긴밀한 공조 촉구할 듯 비상임이사국 활동 계획 설명도 산마리노·체코 등 경제협력 논의

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를 벗어난 협력이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투표가 11월 하순으로 다가온 만큼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로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도 펼칠 예정이다. 유엔총회 계기에 윤

대통령은 30개국 이상 나라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한다.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개별 국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도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도착 이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 회담을 한다. 19일에는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인 가나 대통령 내외와 오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 등 양자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같은 날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참석한다.

이어 20일에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 뒤 양자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과 2024~2025년 임기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은 올해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책임 수행 의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글로벌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지속·확대 △기후 취약국에 탄소 배출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 지원 △디지털 기술 혜택 누리도록 책임 있는 역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21일도 다수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부부는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와 오찬, 저녁에 카리브공동시장 국가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마지막 날인 22일 태평양도서지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 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r@



단식 19일 차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녹색병원으로 재이송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병원 실려간 이재명 "단식 멈추지 않겠다"

단식 19일 차인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이 대표가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최소한 수액치

료 외에는 일일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기력은 전혀 회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뒤,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고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녹색병원은 단식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 있는 곳으로, 치료를 뒷받침할 시설이 완비된 병원이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서 "대표의 이송 과정을 놓고 일부 커뮤니티에선 응급 상황이 아니라거나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등의 글은 가짜뉴스"라며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중 경고하고 당에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명분없는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라"면서도 그의 단식에 대해선 "대의(大義)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구속자 석방 등 민주화 5개 항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2018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은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며 "아쉽게도 이 대표의 단식에선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식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며 "국민적 공감대도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정영인 기자 oin@

정신 혼미한 상태로 긴급 이송 "응급상황 넘겼지만 기력 없어 수액치료 외 음식섭취 않을 것"



금융 사각지대에 관심을 더하고 편리한 금융이 되고자 혁신을 더하고 고객 일상이 행복하도록 안심을 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화손해보험의 +는 계속됩니다

금용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화상청구 서비스 | 생명다양성·환경 보호를 위한 임직원 활동 참여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교육 활동 |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환장 공표

한화손해보험

# 한전 사장에 첫 정치인 출신 김동철... 위기극복 묘수 나올까

## 임시주총서 선임 안건 의결

한국전력은 18일 호남 출신의 4선 의원 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전 의원을 22대 사장에 선임했다. 김 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을 거쳐 최종 임명되면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이 된다.

한전은 이날 오전 11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신입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한전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3~5배수로 추려 전달했다. 이후 한전은 김 전 의원을 차기 사

## 4선 의원... 정무 역량 갖췄지만 에너지분야 경력 전무 자질 논란 역대급 적자 해소 최대 과제로

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부에서 공식 접수하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장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앞으로 김 전 의원의 사장 인선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면 최종 결정된다. 한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김 전 의원은 1955년에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산업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호남 출신 정치

권 인사로 광주 광산구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4선(17·18·19·20대)을 지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 등을 맡았다. 2002년부터 1년 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 비서관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4선 의원, 원내정당 원내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정치권에서는 굵직한 역할을 맡아 정치력과 정무적 판단 역량을 인정받았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서 뚜렷한 경력이 없어 총자산 235조원에 10개 자회사를 거느린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전을 이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런 여론을 불식하는 것은 한전의 고질적인 재무 적자 상황과도 맞물려 김 사장 취임 후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역대급 적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정승일 전 사장은 산업부 제1차관과 가스공사 사장을 겸임하며 에너지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임기 내 한전 적자가 역대급으로 불어났다는 이유와 문제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란 점에서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정 전 사장이 지난 5월 19일 역대급 적자 위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 때부터 한전은 4개월 째 이정복 경영관리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경영위원회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김 전 의원이 차기 사장에 최종 임명되면 이 부사장의 비상경영위 체제도 마무리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카지노 딜러 체험을 하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는 167개 관광 관련 구인기업들이 참여하며, 정부가 올해 1000만명, 2027년 3000만명의 방한 외국관광객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추석연휴 항공·상품권 구매 전 환급 규정 확인을”

#회사원 A씨는 여행을 통해 추석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 원을 결제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8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이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각각 15.4%, 19.1%, 13.3%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

## 공정위·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3년간 추석 항공권 피해구제 644건 피해 발생 뎀 소비자24·1372 상담

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다. 택배의 경우 추석 연휴 전후로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은 채권 소멸시효가 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에는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

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또한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래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것이 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수공, 스위스서 3750억원 그린본드 발행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억5000만 스위스프랑(약 3750억원)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수자원공사가 스위스에서 발행하는 두 번째 채권이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최초 발행한 2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5년 만기 채권 차환을 목표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이상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가뭄, 홍수 등 물재해 저감을 위한 투자 및 수도시설 개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쓰인다는 점과 수자원공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방향, 기후 위기 완화·적응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유도했다.

수자원공사는 모집 시작 30분 만에 당초 목표였던 2억 스위스프랑 투자주문을 완료했으며, 발행 규모를 늘려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을 수용, 5000만 스위스프랑을 추가 발행하는 등 성황리에 투자자 모집에 성공했다.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성

과는 최근 고조된 미국발 추가 금리 인상 움직임과 유럽 물가 지표 기대치 상회 등에 따라 저금리 채권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이뤄진 것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발행금리는 2.1725%로 올해 국내기업이 스위스에서 발행한 선순위 무담보 채권 중 최저금리 수준이다. 이는 모집 규모보다 많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기준에 제시한 금리보다 0.05%포인트 낮춘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발행 성공을 통해 재무 건전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해소됐으며, 수행 사업 포트폴리오의 친환경성과 성장 잠재력, 그간의 ESG 경영실현 성과 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스위스프랑 채권발행 성공은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 축소 등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그린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글로벌시장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 청년농 농지 구하기 어렵다

### 농지은행 예산 대폭 확대 예고

농촌과 지역 활성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이 신청한 공공임대 중 절반만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의 공공임대 사업 신청 중 지원이 이뤄진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신청한 농지면적은 2681ha지만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1355ha였다. 이 비율은 2020년 47%에서 2021년 67.9%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낮아졌다.

신청과 실제 지원이 차이가 나는 데는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와 청년농이 원하는 입지 조건 등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농지는

행이 은퇴농 등으로부터 매입해 비축한 농지면적 중 많은 부분이 임차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지은행의 미임차 농지는 2020년 12ha였지만 지난해에는 156ha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농지 매입 후 곧바로 임차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면서도 “청년농의 수요를 모두 맞추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농이 토지를 구해도 소유주가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발품을 팔아 농지를 찾기도 소유주가 농지은행 등 관계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한다”며 “농지를 빌리지 못하면 땅을 사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도 그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상속 등 농지 처분이 필요할 경우, 농지은행이 우선협상대상의 역할을 하는 방법과 현행 1000㎡ 인 농지 매입 면적 한도를 폐지해 청년

층이 선호하는 농지 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한계가 있어 이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매입면적 기준을 줄이면 농지 쪼개기 등으로 약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농지은행 예산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을 위한 농지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 사업 예산은 올해 1조4635억 원에서 내년 1조8059억 원으로 3456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증가 예산의 대부분은 우량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비로 3050억 원이 늘어난 1조7000억 원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2500ha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에도 171억 원을 투입해 40ha를 마련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키 국가대표 천은비 선수

하키 국가대표 이정준 선수

하키 국가대표 서정은 선수

**필드를 흠뻑 적실 땀방울의 감동 플레이**

**COMING  
SOON**

환상적인 팀워크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 완료!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신한이 하키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유엔총회 맞춰... 미국 뉴욕 등 50개국서 '기후 시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행사 '기후주간(Climate Week)' 첫날인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환경운동가들과 시민이 "화석연료를 퇴출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후주간을 맞아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2009년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기후주간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 日 80세 이상 인구 첫 10% 돌파

65세 이상 고령자 29% 역대 최고  
사회보장 비용, 정부 지출 3분의 1

일본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전체 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18일 '경로의 날'을 맞아 이달 15일 기준 인구통계를 공개했다. 8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보다 27만 명 늘어난 1259만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였다. 이는 일본인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라는 뜻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보다 1만 명 줄어든 3623만 명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시작된 1950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고령자 비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0.1%포인트(p) 높은 29.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5세 이상 인구

는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72만 명 증가한 205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971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합류하는 2040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39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에 일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지난해 일하는 노인 수는 912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 늘었다. 이는 19년 연속 사상 최다치를 경신한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도 1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 고령화에 따라 연간 정부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비용도 급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4회계연도 예산으로 이번 회계연도 초기 예산보다 5870억 엔(약 5조2642억 원) 증액한 33조7300억 엔을 요청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 “中 경기침체, 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나쁠수도”

중인구 이미 지난해부터 줄고  
공공부채율 日보다 30%p 높아  
미국과 같등으로 수출도 발목  
씨티은행 “중정부 대응도 미흡”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국 상황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능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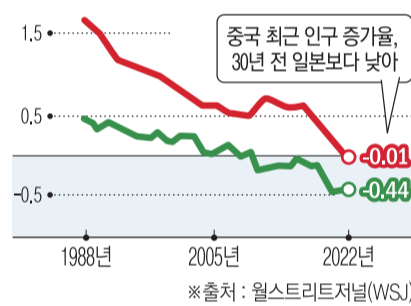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경제가 일본의 과거 장기침체 사이클과 유사성을 보이지만, 중국이 더 큰 공공부채와 인구감소, 미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했다가, 1990년대 초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수년간 고속 성장세를 보다가 최근 거품이 꺼지면서 여러 경제적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미 당국의 금리 인하와 각종 소비 진작책에도 중국 가계는 지갑을 닫았고, 기업은 신규 투자보다는 빚 갚는데 열중하면서 경제 성장세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거품이

**중국과 일본 인구 연간 증가율**  
(단위: %)



경제 버블이 꺼진 지 거의 20년이 지난 2008년에 들어서야 인구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즉, 중국은 일본과 달리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도 전에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한 마디로 부자가 되기 전에 인구가 늘어버렸다는 이야기다.

이렇다 보니 생산성도 과거 일본 버블

경제 때와 큰 격차를 보인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2850달러(약 1703만 원)로, 버블 경제 붕괴 직후인 1991년 일본(2만9080달러)보다 훨씬 적다. 중국의 공공부채 비율 역시 과거 일본을 크게 앞지른다. JP모건체이스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의 총 공공부채는 95%로 1991년 일본(62%)을 크게 웃돈다.

여기에 과거 일본에는 없던 변수도 있다. 세계 1위 경제국인 미국과의 갈등이다. WSJ는 "일본이 엔화 가치 약세로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는 했어도 결코 '신냉전'과 같은 리스크는 없었다"며 "반면 중국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을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

이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나선 상황"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경기침체 리스크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복지 확대 주의' 폐해를 우려해 여전히 가계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씨티그룹의 요한나 추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자국 경제가 '일본화' 궤도에 진입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성장 전망이 일본보다 더 급격하게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월가 “저금리 위안화로 신흥시장 투자하라”

중국 금리 6월 이후 두차례 인하  
들쭉이는 엔화 대안으로 급부상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 종료 관측

일본은행(BOJ)의 통화완화기조에 힘입어 각광을 받아왔던 엔 캐리 트레이드 대신 중국 위안화가 캐리 트레이드 시장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인베스코,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TD증권 등이 최근 한 달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자 캐리 트레이드 옵션으로 엔화 대신 위안화를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다른 통화로 표기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고수익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위

안화 대출비용이 급증했지만,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통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6월에 이어 8월 한 차례 추가 인하한 것을 비롯해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잇달아 낮추면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움직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캐리 트레이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입비용이 적어지게 된다.

반면 캐리 트레이드 수단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았던 엔화 가치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변화가 기류가 감지되면서 최근 들쭉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성장 회복세가 탄력을 받아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2016년 이

후 7년 넘게 고수해온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종지부를 찍는 논의에 골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수요를 곧바로 위안화가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대인 남미 시장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성과가 여전히 짝 떨어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질 헤알과 멕시코·콜롬비아 페소 자산 대비 엔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은 올해 들어 42%(15일 기준)에 달했다.

중국당국의 역외환율개입도 변수로 꼽힌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역외 위안화 공급을 줄이고 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당국의 이런 개입은 위안화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고 그 결과 수익을 더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매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바이든·시진핑, 11월 만나 “美中, 추가 고위급 접촉 추진”

셸리언·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제이크 셸리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중해섬 몰타에서 만나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회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16~17일 몰타에서 여러 회담이 진행됐으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회담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이 전략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향

후 몇 개월간 양국 간 추가 고위급 접촉과 주요 분야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전화 브리핑에서 “셸리언 보좌관과 왕 부장은 올해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후 4개월 만에 재회한 것”이라며 “이번 몰타 회담은 이를 동안 약 1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사무 협의와 해양 사무 협의, 외교 정책 협의를 여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왕 부장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에 있어서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 국내 유일 음향수조서 음파 분석... 한화오션 '방산 초격차'

## 르포 시흥 R&D 캠퍼스

방산에만 9000억 최첨단 무장 세계 최대 공동·예인수조 갖춰 7년내 완전자율운항 확보하고 2040년 매출 30兆·영업익 5兆

“시흥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 공동수조 및 예인수조, 국내 조선업계 유일의 음향수조를 보유한 곳입니다.”

강종규한화오션 중앙연구원장은 15일 중앙연구원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이렇게 설명했다.

강 원장은 “2040년에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이 5조 원 이상의 회사로 변모하는 것이 한화오션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방산 분야에만 9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방산 초격차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1981년 연구개발팀 신설을 시작으로 R&D 투자에 본격 나섰다. 이후 2001년 선박기본성능연구소, 2003년 로켓연구소, 2014년 특수성능연구소, 2015년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 이어 2018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 R&D 캠퍼스 내 국내 조선업계 유일의 음향수조 시설(왼쪽)과 캠퍼스 전경.



사진제공 한화오션

년 시흥 R&D 캠퍼스를 개소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첨단기술로 무장한 ‘초격차 글로벌 방산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 그 결과, 시흥 R&D 캠퍼스 내 국내 조선 업계 유일의 음향수조 시설을 확보했다.

음향수조는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해 대상 표적의 음향 특성을 분석하는 방산 분야 전문 연구 시설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공간에 원하는 환경을 구현해 음파의 전파·반사·산란·회전·굴절 등의 특성을 확

인·분석해 군사·비군사적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이원병 한화오션 책임연구원은 “잠수함은 소음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사실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최악의 상황엔 선원들의 목숨이 적에게 손쉽게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상선에 관한 소음 관련 규제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상업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선박의 공동 현상(유체의 증기압보다 펌프 내 압력이 낮아져 생

기는포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시험 설비인 공동수조도 갖췄다. 상업용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2020년 완공한 이 시설은 전체 길이 62m, 높이 21m 규모에 최대 출력 4.5MW 모터를 장착해 총 3600톤(t)의 물을 순환시켜 최대 15m/s까지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이날 방문한 공동수조에는 실제의 30분의1 크기 모형 선박의 프로펠러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50척 이상의 모형선 시험 평가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한화오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최신 예인수조를 보유 중이다. 모형선을 물에 띄워 예인 기계로 끌며 선박의 저항·자항·운동·조종 등의 성능을 시험한다.

모형선 제조 또한 현대화되고 있다. 기존엔 나무를 직접 깎는 방식으로 제작했지만, 현재는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다.

한화오션은 무인시스템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까지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운항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 ‘분할 재상장’ STX그린로지스 “해운업계 DHL로”

해상운송서 내륙 보관창고까지 ‘도어 투 도어’ 물류 서비스 목표

STX에서 인적분할해 재상장을 마친 STX그린로지스가 물류 사업 진출 등 사업 로드맵 구축을 완료하고, ‘해운업계의 DHL’로 거듭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STX그린로지스는 재상장된 15일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며 유가증권 시장에 데뷔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운 회사들이 준비했던 상장을 포기하며 기업공개(IPO) 추진 일정을 잠정 연기하거나 부진한 성과를 보인 것과 다르다는 게 STX그린로지스 측의 평가다.

단순한 선박회사가 아닌 해상운송을 시작으로 내륙의 보관창고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목표로 물류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론칭할 글로벌 B2B 트레이딩 플랫폼인 트롤리고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STX그린로지스가 제공해 각 사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STX그린로지스 관계자는 “벌크 화물 운송에만 치우치지 않은 STX그린로지스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가치에 대한 시장의 충분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 두산에너지빌, 서부발전과 발전기술 고도화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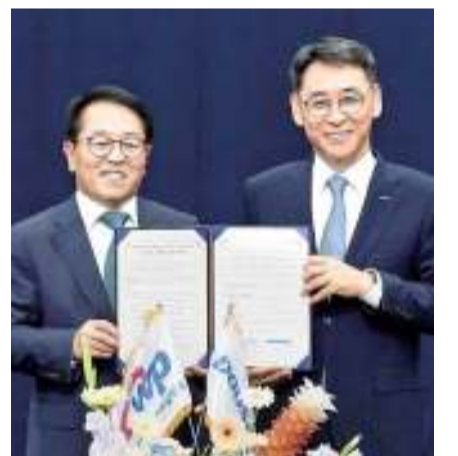
김포 열병합·태안 IGCC... MOU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한국서부발전과 국산 발전기술 고도화와 발전소의 운영 최적화를 위해 협력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서부발전과 ‘김포열병합 설비 안정화 및 태안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책임정비를 위한 기술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두 회사는 김포 열병합발전소와 태안 IGCC 발전소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서부발전은 2개 발전소 운영 주체로서 각 설비 운전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소 성능 및 설비 안정화를 담당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제작한 대한민국 1호 가스터빈이 도입된 김포 열병합발전소는 7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정부 연구 과제로 국내 최초 추진된 태안 IGCC 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두산에너지빌리티,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했으며 201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정연인(오른쪽)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과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15일 경기도 분당두산타워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은 “국산 발전기술 고도화를 위한 서부발전의 적극적인 의지로 가스터빈, IGCC 등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국내 산·학·연이 개발한 기술들이 실증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향상된 기술력과 서비스를 발전사에 제공해 국산 발전기술 수출은 물론, 국내 발전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막내린 ‘H2 MEET’... 사흘간 3억弗 규모 수출상담

18개국서 3만2000여명 방문 국내외 업무협약 20건 체결도 ‘수소 가치사슬 구축’ 협력의 장

국내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 202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H2 MEET 조직위원회는 13~15일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시회에 총 3만2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일간 개최된 ‘H2 MEET 2022’의 누적 관람객보다 6% 많은 수치다.

전시 참가기업도 작년보다 늘었다. 올해 전시회에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3개 부문에서 전 세계 18개국 303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다.

조직위는 리더스 서밋, 컨트리 데이, 테크토크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올해 전시회 콘퍼런스에서 수소 업계 글로벌 전문가 184명이 연사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와 KOTRA가 공동 주관으로 마련한 비즈니스 수출 상담회에는 해외 바이어 39개사가 참가했으며 전시 기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13일부터 사흘간 열린 ‘H2 MEET 2023’ 현장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제공 H2 MEET 조직위원회

중 약 28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전시 기간 집계된 수출 상담 금액은 약 3억 달러(약 3980억 원)로 집계됐다.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뿐 아니라 삼성이앤씨, 일진하이솔루스 등 국내외 기업 간의 업무협약(MOU)이 20건 이상 체결됐다.

강남훈조직위원장은 “H2 MEET가 수

소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수소 산업은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 등 범위가 넓어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H2 MEET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무역協·산은, 유망 스타트업 4곳 실리콘밸리행 지원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수상 기업

한국무역협회와 KDB 산업은행이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로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사업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단은 지난 6월 열린 국내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라이즈’의 수상 기업 4곳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해 준비됐다.

사업단은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드림포스 2023’에 참가하여 인공지능(AI)·클라우드·사

이버 보안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접하고 사업 협력 및 투자 파트너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사업단으로 참가한 신창봉 모픽대표는 “넥스트라이즈 참가가 어워즈 수상과 미국 현지 전시회 참가 및 IR까지 이어져 유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명자 무역협회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올 하반기에도 실리콘밸리에 이어 뉴욕과 도쿄에서도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2mj@

#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41개사 최다… ‘3년 연속’ 3곳 늘어

## 동반위, 2022년도 평가 결과 발표

동반성장위원회의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역대 최다인 41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에 중견기업 3곳이 이름을 올렸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등급 편차는 여전히 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회를 개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214개사에 대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표대상은 214개사다. 우수 기업이 62개사, 양호 기업은 73개사, 보통은 23개사,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미흡 기업은 9개사, 공표 유예기업은 6개사였다.

최우수 등급 기업에는 기아, 네이버, 롯데정보통신,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이노션, 포스코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견기업에선 농심, 대상, 파리크라상이 포함됐다.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당초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공표됐다.

이 중 롯데케미칼, 삼성SDI, 한화(건설부문), 롯데정보통신 4개사는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동반위는 자체적으로 상생에 노력했던 기업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부연했다.

##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1개사	대기업	38개사
		중견기업	3개사
우수	62개사	대기업	40개사
		중견기업	22개사
양호	73개사	대기업	24개사
		중견기업	49개사
보통	23개사	대기업	6개사
		중견기업	17개사
미흡	9개사	중견기업	9개사

※ 출처: 동반성장위원회

### 롯데케미칼·한화 건설부문

### 삼성SDI 등 4곳 첫 ‘최우수’

### ‘우수’ 62곳… ‘양호’는 73곳

### 농심·대상·파리크라상 등

### ‘최우수’ 중견기업은 3곳뿐

### 대·중견기업 등급 편차 여전히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작 이후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은 전년(25개사) 대비 3개사 증가한 28개사였다.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 LG화학, 네이버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



## 민간 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문화 확산

1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 기자브리핑’에서 육성권(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이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반성장위원회

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흡 등급 9개사 중 텐스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일진글로벌, SNT모티브 4개사는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시행했지만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대외에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사에 대해선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중견기업의 등급별 분포는 큰 편차를 보였다. 대기업은 최우수와 우수 등급 비중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양호와 보통, 미흡 등급에 쏠렸다. 실제 최우수 등급에서 대기업은 38개사

인 반면 중견기업은 3개사에 그쳤고, 우수 등급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40개사, 2개사가 포함됐다. 양호 등급에선 각각 24개사 39개사, 보통 등급은 각각 6개사, 17개사였다. 미흡 등급 9개사는 모두 중견기업이다.

동반지수 평가과정에서 중견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대기업 대비 하위 등급을 받았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중견기업의 인프라, 예산, 조직 등이 여전히 대기업 대비 미약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동반위 내부에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눠 공표하지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자사가 동반성장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작년 9월 공포 이후 중견기업 중 개선 여력이 있는 10개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전년 대비 등급이 모두 상승했다”며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상생 활동을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민간의 편차를 좁힐 수 있는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향후 평가지표를 개선해 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오 위원장은 “일각에선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유인책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같은 방법을 통해 끌어들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배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스스로 동반성장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 SKB와 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종료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4년여에 걸쳐 법적 다툼을 이어온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종지부를 찍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사는 법적 공방의 핵심이었던 망사용료 지불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끝까지 법적 판단은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망 사용료 지불에 관한 논쟁은 국·내외에서 더 거세질 전망이다.

SKB와 넷플릭스는 18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을 찾아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소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15일 넷플릭스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따른 결과다. 협상에는 SK브로드밴드와 그 모회사인 SKT, 넷플릭스까지 3사가 모두 참여했다. 이제 3사는 실무적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결합 상품을 내놓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합의는 소송에 따른 법적 비용과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각사의 이해득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

### 부당이득 반환소송 쌍방 취하

### 양사 망 사용료에 대해선 ‘합구’

### 업계선 지불했을 것으로 관측

### 법적 판단 끝내 결론 못내려...

### 국내외 논쟁 더 거세질 수도

“이 갈등 구조는 양 사업자에 부담이 컸다”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게 부담이었던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Btv에 넷플릭스가 나오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었다”

고 설명했다.

합의의 관건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다. 전세계 통신업계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망 투자 공정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양사는 모두 “비밀 조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B에 망사용료를 지불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SKB에 내야 할 망 사용료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된 측면이 있으나 해당 분쟁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끝내 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선 이와 관련된 법안이 8개 발의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달 말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망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 정책 “시장 위축시키는 부메랑 될수도”

정부가 알뜰폰 육성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 시장 점유율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칼을 빼 들었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알뜰폰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알뜰폰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로 운영해온 도매 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하고 중소 알뜰폰 업체의 생존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치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우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불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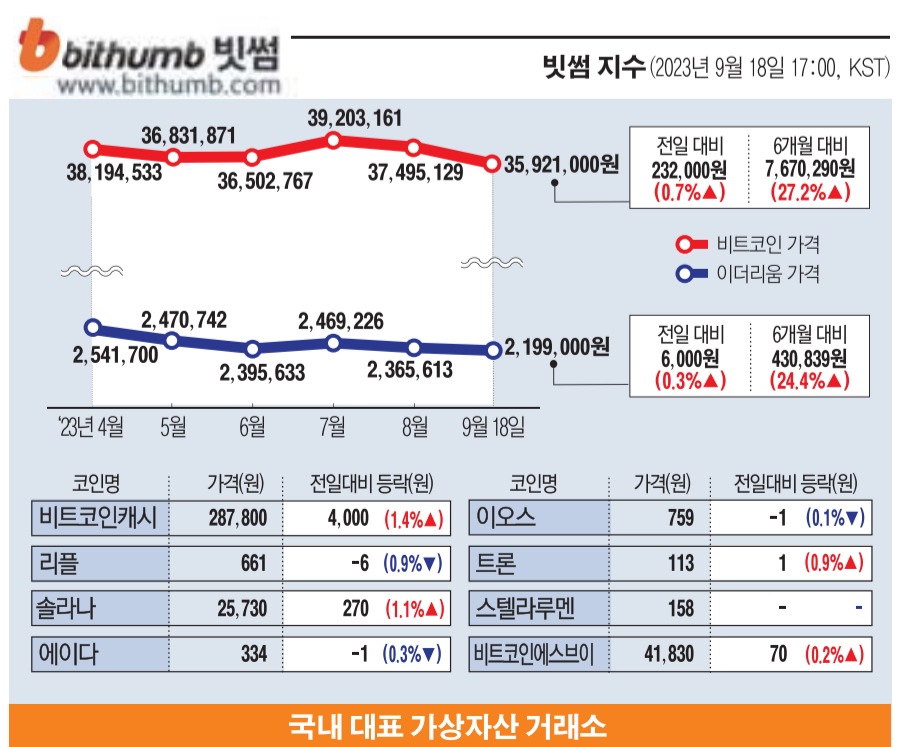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통신 3사의 브랜드를 보고 알뜰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같은 점유율 제한 정책은 알뜰폰 활성화가 아니라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퍼주기식 알뜰폰 육

성 정책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설비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규제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단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 없이 규제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혹시모른다'는 말을 달고사는 사람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혹시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가능성으로 불길에 뛰어든다

혹시 당장 출동할지 모르니까  
불어나는 짜장면보다는 볶음밥을 시키고

혹시 오늘 출근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늘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출근한다

그렇게 혹시모른다는 가능성으로  
소방관은 움직인다

우리금융그룹은  
매일 다른 사람의 생명은 살리면서  
자신의 생명은 마지막인 듯 살아가는  
우리 히어로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 순직 및 상해를 입은 군인 소방, 경찰 공무원 지원
- 전현직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

당신을 위한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화재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을  
화염으로부터 지키는 방염 장갑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삼바, BMS와 3213억 계약... “올해 수주 3兆 돌파”

7년간 BMS 면역항암제 생산  
빅파마 20곳 중 14곳이 고객사  
24만 리터 4공장 가동률 순항  
품질 우수... 제약사들 러브콜



삼성바이오로지스가 글로벌제약사와 대형 수주를 이어가며 연간 수주금액 3조 원 돌파 가시권에 들어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설비과잉(Overcapacity) 우려를 잠재고, 존립 사장의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삼성바이오로지스는 BMS 자회사(SWORDS LABORATORIES)와 총 2억4200만 달러(약 3213억 원) 규모의 면역항암제 의약품을 2030년까지 위탁 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

시했다. 앞으로 7년간 4공장에서 BMS의 주력 제품인 면역항암제를 생산한다. BMS는 삼성바이오로지스가 CMO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10년 이상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주요 고객사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연간 누적 수주액이 역대 최고인 약 2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 화이자와 1조2000억 원, 노바티스와 4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연달아 맺으며 저력을 과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지스의 CMO 계약이 보통 최소구매량보전

(Minimum Take-or Pay)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물량과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존립 사장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둔 경영 방식으로 시장 수요와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거침없는 수주 확대를 이끌어 냈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세일즈를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고객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가의 노하우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올해 6월 전체 가동에 들어간 4공장은 24만 리터(L) 초대형 규모에도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4공장 매출은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

삼성바이오로지스 관계자는 “최근 계

속된 대규모 계약으로 시장에서 한때 불거진 설비과잉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라며 “4공장 가동 후 얼마되지 않아 글로벌 톱 제약사들과 장기 계약이 이어지면서 건설 중인 5공장의 미래도 희망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지스의 총 생산능력은 60만4000리터이며, 선제적인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2025년 4월 완공 목표로 짓는 중이다.

압도적인 생산능력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이전 기간을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3개월로 단축한 속도 경쟁력과 98% 이상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거두고 8월말 기준 누적 규제기관 승인 건수 231건을 기록한 뛰어난 품질 능력에 힘입어 글로벌 제약사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 제약업계에 부는 M&A 바람... ‘미래 먹거리’ 찾는다

대원제약, 화장품사업 진출 모색  
동화약품, 베트남 약국체인 인수  
보령, 우주항공분야 기업 물색

신약개발에 힘을 주던 국내 제약업계가 최근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사업 지분 투자와 적극적인 인수 합병(M&A)에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원제약이 이끄는 DKS컨소시엄은 에스디생명공학과 M&A에 대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DKS컨소시엄은 대원제약, 코이노, 수성자산운용으로 구성됐다. 대원제약은 이를 계기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관측된다.

에스디생명공학의 주력 사업은 마스크팩,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마스크팩 판매 호황에 힘입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화장품 매출 감소와 건강기능식품 사업 위축 등으로 적자 전환했다. 회사의 영업이익 손실액은 2020년 37억 원, 2021년 348억 원, 2022년 380억 원으로 확대됐다.

대원제약의 경우 현재 매출에서 전문 의약품(ETC)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컨슈머헬스케어(CHC) 부문, 일반의약품(OTC) 부문 매출 비중은 7.3% 정도다. 따라서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전문의약품 외에 다른 분야 매출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 분석이다. 앞서 대원제약은 2021년 극동에치팜을 인수하고, 올해 6월 대원헬스케어로 이름을 바꾸면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했다.

동화약품은 올해 8월 베트남 약국체

인기업 ‘중선파마’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동남아 제약·뷰티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K파마와 헬스&뷰티(H&B)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중선파마는 1997년 설립돼 지난해 기준 7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문·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H&B 제품이 판매한다. 이번 인수로 동화약품은 ‘활명수’, ‘잇치’, ‘판콜’ 등 일반의약품의 베트남 시장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타민과 홍삼, K뷰티 상품 판매량이 급증한 베트남 시장에 맞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제품 라인 판매도 확장할 방침이다.

보령은 구체화진 않았지만, M&A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령의 신성장동력인 우주항공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물색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또 보령은 우주헬스케어 산업 개척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CIS(Care In Space)’를 진행하고 있다. 우주공간에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제약산업 M&A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정운택 제약산업 전략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제약업계에선 M&A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국내 제약사는 강한 오너십을 바탕으로 제네릭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M&A 시너지 효과가 없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대, 파이프라인 다변화 전략 등 최근 M&A가 활성화되고 있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바이오벤처는 M&A를 통해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루닛, 英 리즈대학병원과 AI 활용 유방암 연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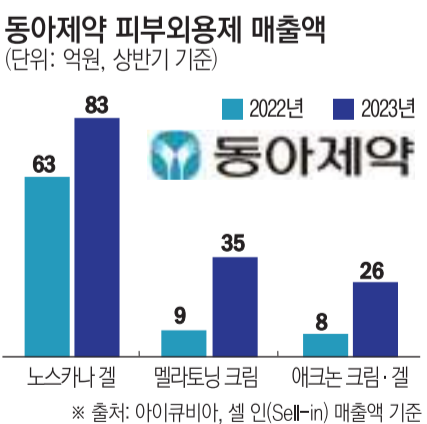
루닛이 유방클리닉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계 최초의 전향적 연구 추진계획을 이달 28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유럽유방영상학회(EUSOBI 2023)’에서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산하 공공의료기관 리즈대학병원은 유방클리닉 환경에서 이미 한차례 루닛 AI 기반의 후향적 연구를 진행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클리닉 환경에서의 전향적 연구를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유방암 진단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후향적 연구였지만, 이번 연구에선 ‘루닛 인사이트 MMG’를 의료현장에 적용하고 실시간 환자 분석을 통해 AI의 실제 임상적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범석 루닛대표는 “AI 솔루션이 유방암 검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블록버스터 잇달아 배출... 동아제약 ‘바르는 약’ 강자로

피부외용제 상반기 매출 121% ↑  
멜라토닌 크림 시장 점유율 70%  
애크논 크림 3년새 100만개 판매



동아제약이 일반의약품(OTC) 피부외용제 시장의 강자에 등극했다. 피부외용제 블록버스터 제품을 잇달아 배출하며 실적을 견인,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아제약은 OTC 블록버스터 제품 대열에 올해 ‘멜라토닌 크림’을 추가할 예정이다. 2021년 11월 출시한 멜라토닌 크림은 올해(1~7월) 누적 매출 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매출액(46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동아제약은 피부외용제 라인업 확장을 통해 OTC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아제약 OTC 사업부에서 피부외용제 카테고리

는 180억 원을 기록, 지난해 상반기 81억 원 대비 121.3% 급성장했다.

대표 제품은 여드름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과 여드름 치료제 ‘애크논 크림’, ‘애크린 겔’, 피부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닌 크림이다. 이를 통해 여드름에서 흉터, 색소침착까지 피부고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동아제약의 연간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부서는 ‘박카스’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꾸준한 외형 확대에도 박카스 매출 의존도를 점차 낮추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올해 상반기 박카스 사업부서 매출은 40.9%이며, OTC 사업부서는 24.5%까지 끌어올렸다. 상반기 749억 원 규모의 OTC 사업 매출액에서 피부외용제 카테고리 비중은 약 4분의 1(24%)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드름 흉터 치료제 시장을 연 노스카나겔은 출시 5년 만인 2019년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 감기약 ‘판피린’에 이어 OTC 블록버스터에 등극했다. 올해는 최고 매출을 올린 2021년(128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성을 이을 멜라토닌 크림은 60~70대 여성 중심이던 색소침착치료제 시장을 30~40대로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7월 출시한 애크논 크림은 출시 3년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넘겼다.

여드름 치료제 시장의 기존 리더 제품인 한독의 ‘클리어틴’이었지만, 애크논 크림은 시장 규모를 4배 이상 키우며 1위에 올랐다.

동아제약은 올해 4월 비염증성 여드림 치료제 애크린 겔을 출시하며 ‘애크 패밀리’를 육성 중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으면서 피부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여드름과 그 흉터, 색소침착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내놓으면서 피부외용제 제품들이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3053억 원을 올려 지난해 상반기보다 17.5%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2억 원으로 59.4% 늘며 나란히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매출 1조 클럽에 입성한 동아쏘시오홀딩스도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혜은 기자 euna@

## 부광약품, 조현병·우울증 신약 ‘라투다정’ 보험급여 등재 신청

부광약품은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신약 ‘라투다정’(성분명 루라시돈)의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라투다정 품목허가 신청 당시 부광약품은 신약으로서 의약품 허가와 보험급여 평가 연계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등재 신청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완료에 따른 것이다.

라투다정은 일본 스미토모파마가 개발한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에 허가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이다. 부광약품이 2017년 4월부터 한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 권한을 획득했고, 독점적 개발권과 판권을 갖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루라시돈이 한국에서 허가되면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유효성·안전성·내약성을 바탕으로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우울증 환자들에게 환영받는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원희룡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 대책도 내놓을 것”

〈생활형숙박시설〉

이달 발표 예정 주택공급대책 ‘공급자 중심’ 규제 완화 예고  
비아파트 공급자 참여 유도하고 생애최초주택서 소형주택 제외  
다주택자 취득세 깎아주기 등 일부를 위한 규제완화에 선그어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주택공급대책에 비(非)아파트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총량을 늘리는 등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소형주택을 배제하는 방안도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했다.

1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먼저 원 장관은 이달 발표

될 예정인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공공의 역할은 주택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구분별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건설업 전반에 자금 순환이 안 되고, 미분양이 발생했다. 주택공급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공급 측면에선 특히 비아파트 분야의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견어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자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수요자의 세금 인하나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성을 높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공급 주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활성화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선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 등을 풀어주는 방향을 협의 및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건축비 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민간 공급자가 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이에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 일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세금을 깎아달라거나, 금융을 끌어 들여 여러 채 사재기하다가 지난 정권이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4일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정체성이 고민되는데 단기적으로, 다음 달 집값 급등기에 이전 정부가 놀라 매년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 적절하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추석 전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내용과 형식이 조율되면 늦게 발표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통계 조작’ 논란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통계 존속 여부는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통계 유지 여부를) 필요하면 공론화 거쳐서 정할 것”이라며 “서둘러 정하기엔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경제 개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를 보유한 나라는 한국뿐이므로 재건 사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용욱 기자 dragon@

## 전국 아파트값 격차 다시 커졌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만 올라  
직방 ‘지니계수’ 1월 이후 확대

전국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더 커졌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체 가격 수준을 끌어올렸고, 동시에 아파트 간 가격 격차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상대적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8월 말 기준 0.441포인트(p)를 기록했다. 해당 지니계수는 2020년 10월 0.462p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12월 0.426p까지 떨어졌다.

이는 올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아파트 간 가격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직방 관계자는 “1개월의 시차는 있으나 거의 동시에 아파트 가격지수와 지니계수가 반등을 시작한 것은 2023년 현재 전국 아파트 시장은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역별 아파트 가격 반등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의 영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아파트값이 전국 평균(6.1%)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한 곳은 세종(10.4%)과 경기(8.3%), 서울(8.1%), 인천(6.3%)이었다.

그중 서울, 세종, 경기의 아파트 평균가격(2022년 12월 기준)은 전용 84㎡ 기준으로 각각 10억4000만원과 5억2000만원, 5억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4억8000만원보다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산 축적을 통한 주택 상향 이동 및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하락뿐만 아니라 가격 격차의 동향 또한 공공에서 예의주시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금호건설, 서울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 수주

총 276가구...910억 규모

금호건설이 910억 원 규모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투시도)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3개동, 총 27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이번 사업에 단지 가치 극대화를 위한 외관 특화를 반영해 신정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지 외관을 명품 커튼월을 적용해 고급감을 극대화하고, 그랜드 게이트(문주)를 적용해 상징성을 더한다.

또 단지 1층 전체를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필로티로 조성해 쾌적성과 개방감은 물론 입주민을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마

련했다. 단지 미관을 저해하는 옹벽은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해 자연재광 가로변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명품 외관과 쾌적한 조경,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 등의 조성으로 신정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며 “명품 단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ی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사진제공 금호건설



# My Amazing Oat mix

부드럽고 깔끔한 어메이징 oat, 새롭게 즐기는 비건 oat 음료

어메이징 oat 판매처	온라인 :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쿠팡, SSG.COM, 카카오프렌즈, G마켓, 11번가, 마켓컬리, 위메프 오프라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올리브영, 현대백화점, SSG 청담, 코스트코	매일유업 소비자 상담 1588-1539
--------------	---	-----------------------

# '뱅크런' 진정됐나... 새마을금고 '고금리 특판'에 오픈런

## 불 붙은 고객 재유치 전략

18일 오전 9시 충북 청주의 모층새마을금고. 문이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오픈런'이 시작됐다. 수십 명의 고객들이 건물을 에워싸듯 대기하고 있다. 한꺼번에 몰려들은 것.

주부 A씨는 "새벽 7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며 "일주일 전부터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곳 특판 홍보를 많이 해서 오픈런이 예상돼 최대한 일찍 왔지만 앞에 이미 20명 넘게 줄을 서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고객 B씨는 "12시에 왔는데 접수가 이미 마감돼 허탕을 쳤다. 번호표가 140번대인 것을 보고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허탈해했다.

모층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객들이 오픈 전부터 줄을 서 있어 2시간만에 번호표 발급을 마감했다"며 "업무가 종료된 후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 중으로 완

7월말 예금잔액 17조 넘게 빠져 작년 이어 또 고금리 상품 내놔 연8% 적금 2시간만에 접수마감 건전성 악화 우려... 점점 강화

판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역대급 고금리로 끌어모은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가 본격 도래하는 가운데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을 겪은 새마을금고가 고금리 특판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연 8%의 정기적금 특별할인상품을 내놓은 모층새마을금고는 순식간에 판매가 종료됐다.

대면 가입만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매장 앞에는 길게 대기줄이 늘어섰다. 출자금 1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월 2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9월 새마을금고 고금리 특판 적금 (단위 : %)

우암새마을금고	12.0
용마새마을금고	8.0
송탄새마을금고	6.3

※출처: 새마을금고

하며 월 납입금 200만 원 상품에 가입하면 1년 후 192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가 이처럼 높은 이자를 준다는 소식에 찾아다니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점을 방문하는 '특판족'도 등장했다. 고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인터넷 재테크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오픈런에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고금리 특판은 최근 눈에 띄게 출시되고 있다. 지난주 우암새마을금고는 연 12.0% 금리를 제공하는 12개월 만기 정기적금 판매에 나섰다, 용마새마을금고도 연 6.3%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을 내놨다. 지난달 송탄새마을금고의 7.7% 특판 상품은 이틀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이는 7월 발생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객을 재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7월말 예금잔액은 6월말 대비 17조6065억 원 감소했다. 고금리 상품을 통해 이탈한 예금잔액을 회복하려는 목적이다.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1년 주기라는

점도 작용됐다. 1년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자금 경쟁에 불이 붙자 금융권에·적금 금리가 치솟았다. 새마을금고는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자 은행권으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연달아 출시했다. 지난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팔았던 일부 금고가 만기가 도래하며 다시 특판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금리 모니터링 등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가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만큼 고금리 출혈경쟁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대출 확대, 고금리 특판 예금 취급 등 외형 경쟁을 자제하고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상원 기자 j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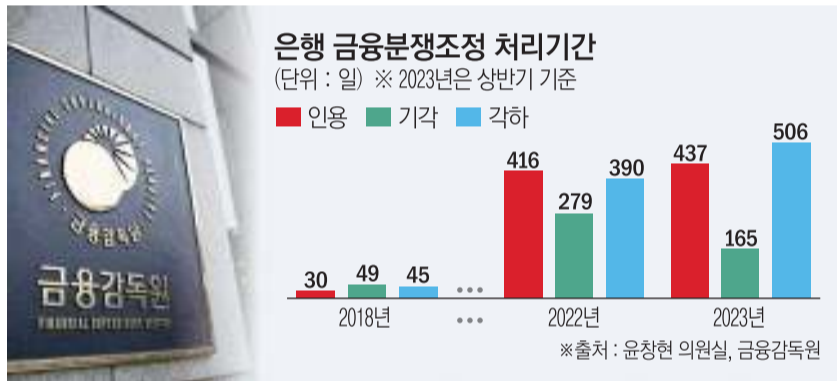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 혁! 은행분쟁 민원 처리 437일

금감원 상반기 처리 133건 그쳐  
능장대응에 금융소비자 불편 지속  
"사모펀드 분쟁 제외하면 감소"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 평균 1년 2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속도가 5년 전(30일)에 비해 14배 느려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금감원의 능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는 평균 437일 걸렸다. 처리한 건수는 133건에 그쳤다. 5년 전인 2018년에 평균 30일(106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처리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처리 건수와 상관없이 처리 기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용 처리 건수는 242건, 민원이 인용되기까지 평



균 기간은 416일 걸렸다. 올해 상반기 처리 건수보다 절반 가까이 많지만, 소요 기간은 21일 짧았다. △2021년 306건, 299일 △2020년 485건, 183일 △2019년 175건, 91일 △2018년 106건, 30일이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올릴 민원인지 판단해 회부한다. 사건이 회부될 경우 분조위는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분쟁조정 '각하'에 소요된 기간은 올

해 상반기 평균 165일, 처리 건수는 17건으로 지난해 279일, 191건과 비교해 기간과 건수 모두 줄었다. 반면 '각하'에는 506일, 15건으로 지난해 390일, 40건보다 처리 건수는 반 이상 줄었지만 처리 기간은 116일 늘었다. 각하는 △자료보완 요구반송 △사실관계확정 곤란 △수사 진행 △소 제기 등 일 경우를 뜻한다.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을 접수한 건수와 금감원이 분쟁을 처리한 건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분쟁조정 건수는 146건이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300건으로 1년 전 520건 대비 220건 줄

었다. 2019년에는 832건, 2020년에는 1087건에 달하기도 했다. 분쟁 처리 건수는 2020년 815건에서 2021년 551건, 지난해 530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0건을 처리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실시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모펀드 분쟁이 포함돼 처리기간이 증가했으나, 사모펀드 제외시 처리기간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은행 분야의 사모펀드를 제외한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상반기 △인용 34일 △기각 188일 △각하 182일로 지난해 △인용 58일 △기각 271일 △255일보다 줄었다. 다만 기각과 각하의 처리 건수는 올해 상반기 9건, 5건으로 지난해 118건, 13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분쟁조정 전담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금감원 민원은 여전히 신속처리와 거리가 먼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민원처리의 속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외국인 신분증 실시간 확인

신한은행, 진위확인 시스템 오픈  
신한솔 등 비대면도 내달 적용

신한은행은 외국인 은행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에서 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정보와 얼굴 사진의 특징점까지 추출하고 법무부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중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신한솔(SOL) 등 비대면 채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보험 하나로 '5대 질병' 대비를 삼성생명 '인생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주 보험만으로 3대 질병과 요양, 치매까지 통합 보장하는 '삼성 고품격 인생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보험 가입만으로 3대 질병인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과 중증장기요양상태, 중증치매상태 등 총 5개의 핵심 질병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의 130%를 종신까지 보장한다. 5대 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월납입보험료 10만 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케어(Care)50+' 서비스가 추가된다. 가입나이는 30세부터 최대 65세까지 있다. 서지연 기자 sij@

##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7년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적발규모 1조 넘어... '처벌 강화' '보험사기방지법' 21일 국회 논의  
개정안 통과면 보험료 6000억 절감  
계류법안 1만건 넘어 무산될수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21일 열리는 국회 정부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번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는 셈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 동안 한 차례의 개정도 없어 보험사기 수법은 훨씬 교묘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8년 7만9197명 △2022년 10만2679명으로 약 30% 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 역시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

고, 보험업법 중사자의 보험사기가 중처벌 및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해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등이 담겼다.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했다. 보험사기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데, 이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간의 견충돌음이 무

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게 시장의 평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 총선을 앞둔 만큼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안되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정부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1만 건이 넘는다"며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라임펀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기류로 인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못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jsw@



#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2023.9.21.(목) - 9.24.(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이민지  
Minjee Lee

패티 타와타나킷  
Patty Tavatanakit

황유민  
Yu-Min Hwang

김수지  
Su-Ji Kim

리디아고  
Lydia Ko

박민지  
Min Ji Park

박지영  
Ji-Young Park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벤처스 | 핀크

주 관 : LPGA

방 송 : SBS Golf

후 원 :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A'REX Airport Railroad

기획/운영 : Prain

(Finance+Influencer)

# “나 ○○○인데...” 유명 핀플루언서 사칭 ‘투자사기’ 극성

서울 용산구에 사는 박모(33) 씨는 얼마 전 유명 ‘핀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채널이란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주식을 사라. 지금 들어가면 안 되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잃게 된다”라는 투자 권유에 속아 고점에 투자를 했는데 다음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른바 ‘핀플루언서’에 속은 것이다.

직장인 김모(27) 씨는 주식 투자권유 문자에 답을 남기니 바로 회신이었다. 유명 ‘핀플루언서’가 운영한다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을 알려줬다. 20여명이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니 운영자가 ‘맛보기’ 정보를 주겠다고 “지금 ○○주매수하세요. 1만2500원이마지노선입니다”, “지금 1만3000원에 매도 예약하세요”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어 단독방 참여자 중 일부가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달 월급 건졌네요”라며 답글을 올렸다. 그는 “바람잡이 같기도 하지만, 실제 짧은 시간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진짜 수익을 낼 거 같아서 따라 해볼지 매일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주식시장에서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사칭하는 계정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확산하고 있다. 해당 SNS 측에 사칭계정을 신고해도 이름만 바뀐 채널들이 우후죽순 생겨

나고 있어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신조어로 이들의 투자 발언 하나하나가 국내 증시의 개인투자자들을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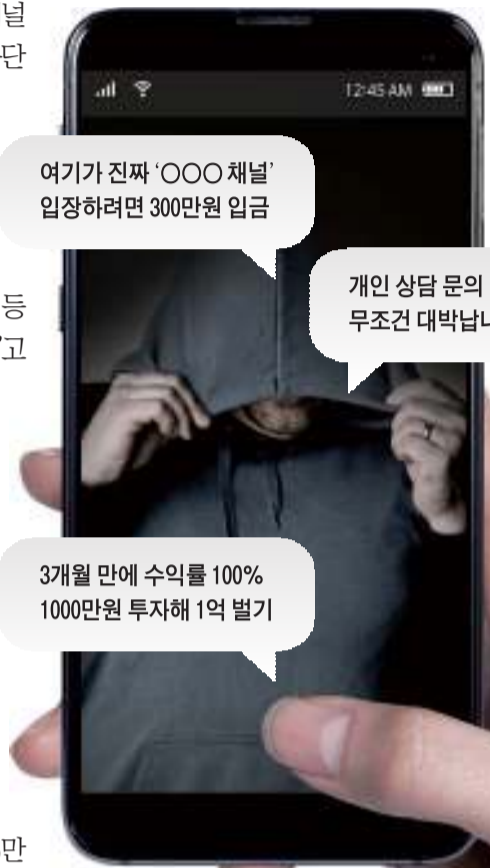
18일 국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에 ‘박순혁’, ‘슈가’, ‘삼프로’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최소 50개 이상의 채널들이 올라와 있다. 채널을 클릭하면 하단에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지만, 프로필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볼 수 없다.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카카오톡 채널 이름으로 기업이나 단체, 인물 등을 사칭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칭 계정들은 핀플루언서의 이름과 함께 ‘개인상담 문의’, ‘공식 채널’, ‘상담 전용 계정’, ‘무료 상담’ 등의 문구를 달고 약간의 변주를 줬을 뿐, 핀플루언서의 사진과 방송 링크를 게시해 도용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핀플루언서 계정 가운데 인증배지가 붙은 곳은 ‘삼프로TV’ 단 한 곳으로 약 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칭 계정인 ‘슈가월드’(6만

최근 핀플루언서 입김 세지며  
도용계정 오픈 채팅방 급증세  
처벌 가능한 엄중한 범죄지만  
사칭채널 불법리딩방 확산 빨라  
금융당국 감시 인력 확대돼야



3799명)와 ‘박순혁’ 저자의 2차전지 투자 바이블’(1만1435명)에 비해 규모 측면에서 뒤쳐진 모습이다. 카카오톡은 사칭 계정 근절을 위해 플랫폼 내부 확인을 거쳐 공식 계정임을 인증하는 ‘인증 배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밖에 다른 SNS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삼프로’ 또는 ‘박순혁’, ‘배터리아저씨’와 유사한 이름의 채널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유명 핀플루언서를 사칭하는 SNS 채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차전지 붐이 일면서 이차전지에 올라탄 이른바 ‘개미’(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도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등하자 1대1 상담을 통해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공급 정보인 양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개별 경제 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게알을 알음 확산한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 수는 약 1424만 명으로 2018년 502만 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기도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박순혁 작가의 팬이라는 한 개인투자자는 “아는 지인이 당했는데, (사칭 계정이) 또다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종목 추천을 시작한 것 같다. 박 작가는 이차전지 종목 이외 추천을 하지 않는데, 미국 또는 홍콩 주식 투자를 권유해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들은 ‘개인 채널’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으나, 사칭 계정들이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박 작가는 한 방송에 출연해 “유튜브를 개설해 유료회원 모집, 유료광고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불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산상 이익의 많은 부분 포기하면서 개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이어져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범죄”라며 “현재의 금융조사 인력으로는 적출하기 어려울 만큼 지능적인 사칭도 이뤄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시 인력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작가는 본인 사칭 계정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 판커진 IPO... 을 10곳 중 7곳 희망공모가 상단

두산로보틱스, 공모가 상향 기대감 한껏. 아이엠티, 희망밴드 상단 초과

기업공개(IPO) 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두산로보틱스가 기관 수요예측에서 흥행 대박을 터트린 것을 비롯해 8월 이후 IPO를 추진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을 웃도는 가격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그동안 상장을 미룬 기업들도 IPO시장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여 투자 열기는 갈수록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과 논의해 19일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수 기관투자자들이 공모가 희망범위(2만1000~2만6000원) 상단에 베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로보틱스는 경쟁을 집계와 함께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로보틱스의 공모가는 향후 IPO 기업들의 공모가 상향 조정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관 수요예측을 거친 9개 기업(스팩, 코넥스, 유가증권이 전상장 기업을 제외)의 공모가 상단 이상 비중은 77.8%다. 9개 기업 가운데 시큐리티,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코츠테크놀로지, 엠아이큐브솔루션, 시지트로닉스 등 5개 기업이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다.

8월 누적 기준으로 공모가 상단 이상 비중은 72.9%를 나타냈다. 상단 초과는 39.6%, 상단 확정은 33.3%였다. 지난해(54.3%)의 부진을 회복하고, 2020년(80%), 2021년(86.4%) 호황 수준에 점차 가까워져 가고 있다.

공모가 대비 주가 수익률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신규상장한 9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52.3%였고, 공모가 대비 8월 말 종가 기준 수익률은 94.3%에 달했다. 8월 누적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역대 가장 높은 76.4%에 달했다. 올해 6월 말부터 공모가 기준 상장일 시초가 변동폭을 60~400%로 확대 적용한 이후 높은 수익률이 반영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에는 5개 기업이 공모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 밀리의 서재, 아이엠티, 레뷰코퍼레이션, 한쌍 등이 준비하고 있다. 아이엠티는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1만2000원)을 웃도는 1만40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 한쌍도 희망밴드 상단(1만1000원)을 웃도는 1만25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밀리의 서재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희망 밴드 최상단인 2만3000원으로 공모가를 최종 확정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에 이어 서울보증보험도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올해 8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지난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돌입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대어급인 두산로보틱스, 서울보증보험 등이 IPO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들의 IPO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상반기 주식형 ESG 펀드 수익률 19.6%

서스틴베스트 ESG 펀드 보고서 KOSPI200 대비 5.86%p 높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투자 수익률이 코스피200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2023년 상반기 국내 ESG 펀드 동향을 분석해 발표한 ‘ESG 펀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ESG 펀드는 총 159개로 전기(157개) 대비 2개 증가했다.

국내주식형 액티브 ESG 펀드 수익률은 19.61%였다. KOSPI200(13.75%) 대비 5.86%포인트(p) 초과 수익률이다. 통화긴축 우려 완화와 정보 기술 및 소재 섹터가 상승한 영향이다.

국내채권형 ESG 펀드 수익률은 KIS 종합채권지수(3.09%)를 0.23%

p 상회하는 3.32%를 기록했다.

특히 친환경 시장 성장 전망이 강화되면서 환경 테마 ETF의 약진이 돋보였다. 상반기 국내주식형 ESG 펀드 중 수익률 1위는 미래에셋 TIGER 2차전지테마증권 ETF(74.51%)다. 그 외 타임폴리오 탄소중립액티브증권 ETF, KBSTAR 배터리리사이클링 iSelect 증권 ETF 등 환경 테마 ETF 상품들이 국내 ESG 펀드 수익률 톱10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23년 하반기에도 국내 ESG 펀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 공시가 강화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ESG 펀드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sajjoku@

## 돌아온 배당주의 시간

박스피 움직임에 배당주 주목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초 이후 ‘코스피 배당성장 50’,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각각 4.94%, 5.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배당 업종이 편입

된 ‘KRX 보험’(13.25%), ‘KRX 은행’(7.84%), ‘코스피 통신업’(8.96%) 지수도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2.20%, 4.77%씩 하락했다.

향후 증시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증시가 대부분 박스권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증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

인 수익을 보장하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으로 9월은 배당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라는 분석도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2005년 이후 9월에 고배당 지수가 기준 주가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던 경우는 1년 중 6월과 함께 가장 많았다”며 “이후 배당락이 발생하는 연말에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 말~3분기 말은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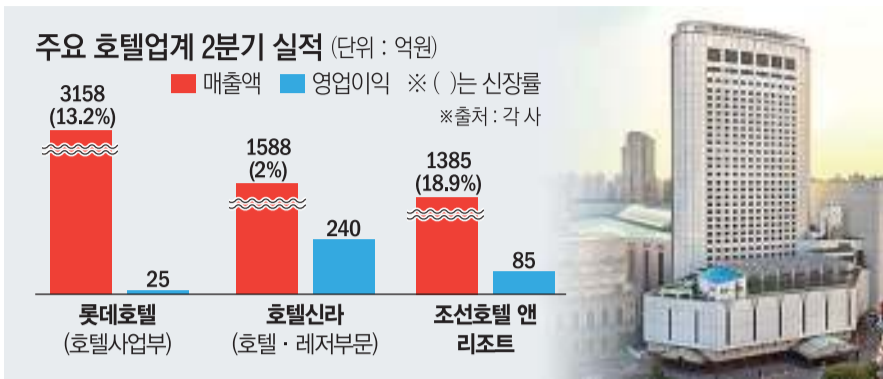


하나증권, 웹툰 조각투자 시장 진출

하나증권은 웹툰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웹툰과 조각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웹툰은 상품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해 제공하고, 하나증권은 거래에 필요한 계좌관리와 신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류제영(왼쪽부터) 웹툰을 전무, 김현모 웹툰을 부사장, 임상수 하나증권 WM그룹장, 최성기 웹툰을 대표이사, 박상빈 하나증권 연구신탁본부장, 최원영 하나증권 디지털본부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증권

# 단체 숙박계 쓰는 유커... 호텔업계, 4분기 '찐실적' 낸다

롯데호텔·호텔신라·조선호텔  
3사 모두 전년비 2분기 매출 ↑  
9월말 中 국경절 뒤 상승 기대  
증권가 "올 4분기 효과 보일 듯"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호텔업계 전반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3분기에는 실적 개선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4분기 이후 본격적인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호텔롯데의 호텔사업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어난 3158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2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1분기 대비 영업실적을 크게 개선했다는 게 회사 측 자평이다. 호텔신라의 올해 2분기 호텔·레저 부문 매출은 작년 같은 기

간보다 2% 늘어난 1588억 원이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세계 계열 조선호텔앤리조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어난 138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5억 원으로 507% 급증했다. 파르나스호텔은 올해 2분기 매출액 1236억 원, 영업이익 22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1.1%, 175% 늘어난 수준이다.

파라디스의 2분기 호텔사업 매출액은 2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엔데믹으로 인해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이 2분기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인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

면 허용했다. 중국이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계기로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을 중단한지 6년 5개월 만이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724만 명 가운데 중국인이 807만 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만큼 호텔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 여행 선 단계 고객 150여 명은 8월 말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방문했고, 이달 초 HDC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인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 700여 명이 방문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도 호재다. 롯데관광 개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제주 평균 객실 예약률은 약 90%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그랜드 하얏트 제주 호텔 38층

에 있는 '38 포차'와 '라운지38'의 운영 시간을 자정 이후로 늘렸다.

다만 뚜렷한 실적 개선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보인다. 일각에서는 9월 말 중국 연휴 이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이 허용됐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4성급 이하 호텔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여행사의 객실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연휴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4분기부터 유커 유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여행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4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 실험실서 기른 보석... 주얼리 트렌드도 '친환경'

###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즉 '랩그로운' 제품이 친환경 요구에 부응해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월드·KDT 다이아몬드 등이 최근 잇달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전문 브랜드를 출시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월드 주얼리사업부는 올해 5월 출시한 랩그로운 주얼리 브랜드 '더그레이스런던'의 오프라인 매장 2호점을 롯데백화점 본점에 열었다. 더그레이스런던은 출시한 달 만인 올해 6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다. 이월드의 또 다른 주얼리 브랜드 '로이드'도 최근 5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출시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Laboratory grown diamonds'를 번역한 것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라는 뜻이다. 1950년대부터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있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며 2010년대

제조기간 3~4주·저렴한 가격  
채굴과정 환경오염 방지 의의  
이월드·KTD 전문브랜드 출시



에는 보석용으로 쓸 만한 원석까지 본격적으로 만들게 됐고 주얼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하 150~200km 이상의 깊이의 높은 온도와 압력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원석이 생기는 데도 10억~33억 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반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3~4주에 걸쳐 만든다. 만드는 시간이 짧은 만큼 가격 역시 천연 다이아

몬드의 3분의1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KDT 다이아몬드와 서울시립대 송오성 교수팀이 산학협력으로 2021년 12월 보석용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강성혁 KDT 다이아몬드 CEO는 "고드름과 각얼음 둘 다 얼음인 것처럼 천연·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모두 만들어진 장소만 차이가 있지 물리·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채굴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 물질·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최근 기업의 환경·윤리를 강조하는 ESG 덕에 랩그로운 제품의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 리서치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이 2030년 499억 달러(약 65조2700억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본다. 국내 수요도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성다이아몬드 수입액은 약 5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배 늘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서울 마포구 할리스커피 공덕점의 선술집점 펫프렌들리 매장 전경. 한 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왼쪽 아래 작은 사진).



## 가족 혼자 두면 불안하죠? 반려견과 함께 커피 마시고 산책도

### 가보니 '펫프렌들리' 카페

반려동물 간식 뽑기·배변봉투 비치  
울타리 두른 전용놀이터 '펫존' 마련

"가족 같은 강아지를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공간이 있어서 좋네요."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할리스 공덕점의 선술집점에서 만난 이옥형(62) 씨의 표정은 즐거움 그 자체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펫 프렌들리' 특화매장인 이곳은 일반 커피점과 펫존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 다만 펫존에서도 견주는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치워야 하는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펫존에는 반려동물 간식 자판기도 있었다. 배변봉투와 탈취제 같은 편의용품도 함께 마련돼 있다. 메뉴 주문은 할리스 앱에 있는 스마트 오더로 한 뒤, 반려동물을 펫존에 묶어두고 음료를 픽업하면 된다.

이곳에선 처음 보는 고객들도 반려동물을 고통 화제로 담소를 나눴다. 카페를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셈. 남해경(64) 씨는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강아지가 놀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 같은 날 또 다른 펫 프렌들리 카페인 서울 송파구 커피핀 석촌호수점에

서 만난 윤낙범(38) 씨는 아예 강아지를 안고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윤 씨는 "석촌호수 근처에 강아지와 함께 산책한 뒤 잠깐 맘을 식힐 겸 찾는다"면서 "이렇게 일할 때도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냐"며 웃어보였다. 이곳 매장 한편에는 울타리가 설치된 펫존이 있었다. 반려동물용 장남감과 작은 텐트도 있었고, 바로 옆에 마련된 펫 MD존에선 견주들의 쇼핑이 한창이었다. 일주일 내내 이곳을 찾는다.

현행법상 카페에서 반려동물과 공간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커피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 전용 유모차, 울타리, 리드줄 등을 갖춰야 한다.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펫 프렌들리 특화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25.4%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지난해 3조4000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사진 문현호 기자 m2h@

## MZ도 찾는 '조용한 럭셔리'... 요즘 대세는 '올드머니룩'

올 FW 시즌 고급스러운 의류 인기  
캐시미어 원단·차분한 색상 사용

최근 몇 년간 유행한 화려한 복고풍 패션인 Y2K 트렌드가 저물고 가격은 비싸되 디자인은 단순한 올드머니(old money) 룩이 대세다. 이전에는 중장년층 위주로 올드머니룩이 주목했다면 최근에는 MZ세대도 신흥 소비자로 합류하는 추세다.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FW(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신세계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등 주요 패션기업들이 잇달아 올드머니룩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올드머니룩은 신흥부자를 말하는 뉴머니룩과 대조되는 패션을 말한다. 집안 대대로 부자인 이른바 '진짜 부자'들이 입는

옷으로,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소재 등이 고급스럽고 상표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조용한 럭셔리'로 불리기도 한다.

올드머니룩이다 소수만난 디자인인만큼 소재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다. FW 시즌에도 고급 캐시미어 소재를 활용한 코트 등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컨템포러리 브랜드 '텔라라나'는 이달 이탈리아와 영국의 유명 원단사로부터 고품질의 캐시미어 원단을 수입해 코트, 재킷, 니트, 팬츠 등 33종의 제품을 출시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컨템포러리 브랜드 '구호'도 FW 시즌을 맞아 캐시미어 아이콘 코트를 출시했다. 모든 상품에는 이탈리아 롬보사의 고품질 캐시미어를 100%

사용했다. LF도 자체 브랜드(PB) '스탠다 이얼'을 통해 FW 시즌을 겨냥한 올드머니 룩 '트위드 컬렉션'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중장년층이 올드머니룩을 즐겼다면, 최근 들어 MZ세대가 올드머니룩에 심취하고 있다.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는 최근 자사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카테고리 꾸준히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신(新)명품으로 불리는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도 올드머니룩 대표 주자로 꼽힌다.

MZ세대까지 올드머니룩이 주목하는 것은 2010년 초반부터 대세였던 이른바 '플렉스(Flex)'에 MZ세대가 싫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클래식한 올드머니룩은 비교적 유행을 타지 않기에 두고두고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지영 기자 kij42@

# 대법 “인턴 확인서 허위 맞다”… 최강욱, 의원직 상실

## 대법 전합 12명 중 9명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 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이날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합이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

## 조국 아들에 인턴 확인서 써줘 대학원 합격… 입시 방해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허숙정,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 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원심을 확정했다.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전합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례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단한다. 이날 전합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해 총 12명(다수 의견 9명·반대 의견 3명)의 대법관이 관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구체적인 회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관 9명은 다수 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 3인은 다수 의견과 달리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파기환송’이란 반대 의견을 냈다.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씨다. 허 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보병 여군장교 46기로 임관했다. 30기 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장교를 역임했다.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전과는 없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잠실 야구장 허물고 3만석 돔구장 9만㎡ 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조성

### 롯데 ‘스포츠·마이스’ 구상 호텔 연결해 객실서 야구 관람 한강·탄천 어우러진 생태공간도



오세훈 서울시장(16일(현지시간) 아늑 카루나라트네 토론토 블루제이스 부사장으로 부터 로저스센터 시설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 잠실의 ‘산업·문화 지형’이 탈바꿈된다. 류현진 선수가 속한 메이저 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 로저스센터처럼 돔구장과 연결된 호텔이 생기고, 주변에는 한강·탄천과 어우러진 생태·문화공간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잠실에 첨단 돔구장과 전시컨벤션센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오 시장은 16일(현지시간) 토론토 로저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잠실 일대에 돔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전시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현재 야구장을 허물고 건립되는 돔구장은 3만석 규모로 국내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신 트렌드도 반영된다. 내·외야를 순환하는 360도 개방형 콘코스(관중석과 연결된 복도공간)와 스카이박스, 필드박스, 패밀리존이 조성된다. 특히 야구장과 호텔을 연계 조성해 객실, 레스토랑, 피트니스 등 호텔 내 여러 공간에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약 300실 규모 호텔에서 120실은 구장이 보이는 프리미엄실로, 객실에서 편안하게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전시면적 약 9만㎡, 회의면적 약 2만㎡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도 들어선다. 전시면적은 미국 뉴욕의 자비츠센터보다 1만㎡ 이상 넓다. 자비츠센터는 뉴욕시 전체에 연간 약 2조 4000억 원의 매출, 약 1만 6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일으키는 뉴욕 최대 전시·국제행사장이다.

오 시장은 로저스센터와 연결해야

구장을 조망할 수 있는 호텔 객실을 둘러본 뒤 “여기 와서 보니까 야구를 즐기는 것 자체가 축제 같은 느낌이 든다”며 “우리가 호텔과 연계해서 시설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과 연결된 잠실 돔구장은 로저스센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된다. 2026년 착공해 2031년 말 준공이 목표다.

로저스센터는 약 4만 1000석 규모로, 메리어트 시티센터 호텔과 연계 조성돼 객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프리미엄석 확대 등 대대적인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잠실 돔구장은 개폐식인 로저스센터와 달리 폐쇄형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돔구장 건설비만 5000억 원 안팎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 기간 대체 구장 확보 문제는 아직 검토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잠실주경기장에 리모델링을 통해 1만 7000석 규모의 대체 구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우려가 나왔다”며 “고척돔, 목동야구장이나 수원, 인천 등 기존 구단과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방안을 KBO와 구단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캐나다)·김서영 기자 0jung2@



### 영양고추 축제

1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고추로 만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 ‘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를 슬로건으로 사흘간 진행되는 올해 축제에선 엄격하게 선정한 50여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업체가 영양고추와 다양한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신태현 기자 holijak@

## 공교육 결합 ‘K에듀테크’ 키워 수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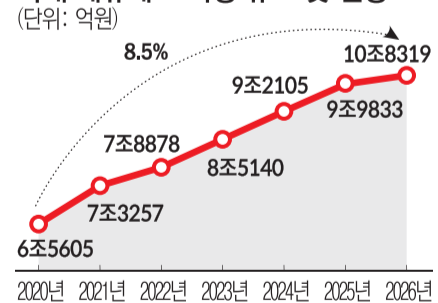
### 연 8.5% ↑ … 2026년 11조 전망 ‘하이테크 하이테크’ 등 브랜드화 국가별 수업모델 개발… 박람회도

정부가 ‘K-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는 기업별·상품별로 해외 진출을 해왔는데, 이제는 K-에듀 브랜드를 바탕으로 교육과 에듀테크를 결합한 패키지를 수출한다는 전략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세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021년 7조 3000억원 규모인 에듀테크 산업 시장이 연평균 8.5%씩 성장해 2026년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에도 에듀테크를 도입해 수업의 질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K-에듀’ 브랜드로 해외 진출까지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부는 K-에듀 브랜

###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 및 전망



드 개발에 나선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테크 하이테크’ 등을 중심으로 K-에듀 브랜드 슬로건 및 핵심요소를 올해 하반기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랜드K’와 연계해 우수 중소기업 선정·지원에도 나선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류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의 K-박람회 등 주요 박람회에 K-에듀테크 분야를 내년에 신설할 예정이다.

현시 수업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을 기반으로 국가별 에듀테크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관련된 에듀테크 수출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올해 인도네시아 에듀테크 기반 수업모델

개발 및 효과성 연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진행 중이다.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참여하는 기업 규모를 확대해 영국 ‘벡쇼’ 등에 버금가는 아시아 최대 박람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해외 초청 바이어만 대상으로하던 수출상담회를 국내·외 바이어 전체에 대한 사전매칭·상담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에는 스타트업 IR(Investor Relations) 공모전을 개최해 투자설명회(Venture capital pitching) 기회를 부여하고, 박람회 참가 에듀테크 기업 및 투자자간 네트워킹 행사 운영한다.

디지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6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국가의 교육시스템 등의 DB를 구축해 기업에 제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운 교육부 차관은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 항공 보안기술 자립화 첫발... 폭발물도 직접 만들어 점검

## 르포 충남 서천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항공 보안장비란 항공 분야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등을 말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그 성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성능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간 국내 기업은 성능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국내 인증 제도의 부재로 해외 인증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인증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서 인프라를 조성, 준공에 이르렀다. 보안검색기술 자립화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가을을 알리는 비가 여름의 흔적을 지우던 15일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찾았다. 20일 준공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항공보안기술 독립을 선언하게 될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이하 센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승용차로 1시간 10분가량 걸려 도착한 센터는 드넓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나 홀로 우뚝 서 있었다. 서천군이 꿈꾸는 '국가보안검색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선봉장의 모습이었다.

아직은 진입로의 아스팔트 조성도 끝나지 않았고, 주위엔 다른 건물도 전혀 없었지만, 보기 좋게 나뉜 산단 구획과 입지 계획도를 보며 조만간 국가보안검색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임에 한 치의 의심도 들지 않았다.

◇ '보안기술 자립화 시작...국내 최초의 보안·안전·치안 전문 시험연구센터' =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장비 신뢰성 및 성능 향상과 외산 의존도 탈피를 위해 2018년 10월 항공보안법을 개정,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KTL을 시험기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착수했다. 정부는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시험인증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5년간 총 96억 원을 투입했

국내 첫 보안·안전·치안연구센터 신속·정확한 엑스선 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장비 원스톱 지원 서비스

美·유럽 외산 장비 의존 탈피 보안산업 육성·지역 활성화 도모 항만·철도 보안까지 범위 확대

다. KTL은 항공 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추진을 위한 시험인증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기관으로 국내 전무했던 성능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항공 보안장비 시험 인프라를 준공했다. 센터는 국비 96억원, 충남 70억원, 서천군 70억원 등 총사업비 236억 원을 들여 1만3297㎡ 부지에 연면적 376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항공 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 검사를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항공 보안장비 전문 시험평가시설이다. 박정원 KTL 부원장은 "국내 최초의 보안, 안전, 치안 전문 시험연구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안기술의 자립화와 국민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신속·정확한 성능 검증을 위한 최고의 시험 환경 조성 = 연구동 1층으로 이동하자 KTL 연구원들이 항공 보안장비 시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요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용지 19-3
규모	17개동(지하1층, 지상2층), 1개동(지상 1층), 1개동(지상 1층), 1개동(지상 4층)
면적	1만3297㎡ (4029평)
연면적	3761㎡ (1137평)
연구동+지원시설	일반 기술·정책 연구 등 일반 사무공간, 환경시험 평가실, 성능인증신청자를 위한 고객센터, 회의실 등
주요 시설	시험동: 표준물질시험실 및 합성·분석실이 있으며, 제조된 표준 물질로 시험을 수행하는 성능시험실, 표준시료 보관실 등으로 구성 간이저장소: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시료) 취급·저장공간



KTL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험을 진행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센터의 성능인증 시험대상 장비는 △엑스선 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 항공보안 장비 등 8종이다. 이들 장비는 KTL을 통해 받은 성능인증평가 결과로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엑스선 검색장비는 휴대 및 위탁 수하물, 항공화물 등에 포함된 위해 물질 및 폭발물 탐지에 활용된다. 엑스선 발생 장치를 이용해 검색 대상물을 엑스선으로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한다. 센터는 다양한 시료들을 전부 구비하고, 갖가지 상황을 모두 구현해 엑스선 검색 장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상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항공국방신뢰성센터장이 15일 충남 서천에 있는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에서 엑스선 검색장비 시험 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KTL의 성능평가 시험을 거쳐 성능 인증을 받은 씨엔아이의 엑스선 검색 장비는 물체를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이미지강조 기능 세분화 등 검색 능력 향상과 사용자의 장비 운용성 및 검색 편의성 기능에 초점을 두고 개발돼 외산 장비와 견줘도 손색이 없었다. 옆 시험실에서는 기자가 봤던 인천공항 수하물 짐 찾는 곳보다 훨씬 더 긴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를 구현해 신속·정확하게 다양한 시료를 통해 장비의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극저온과 극고온의 환경을 구현하는 챔버와 엄청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실험실도 갖춰 극한의 상황에서도 보안장비가 이상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눈길을 끄는 곳은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센터는 표준물질시험실과 합성분석실을 갖추고 있으며, 성능 시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시료) 취급 저장공간도 외부에 따로 구비했다. 즉, 다양한 폭발물을 센터에서 직접 만들어 보안장비 성능검증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시료를 보관할 저장소를 구비해 보관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 국내 기업 경쟁력 높이고 외산 장비 의존 탈피... 시험인증 범위 확대 = 센터가 보여줄 기대효과는 무궁무진하다. 먼저,

우리 기업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항공 보안기술 자립화를 이끈다. KTL의 센터를 통해 국내에서도 시험이 가능해지면서 제품 개발 및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는 것이다. 또, 그간 국내 항공 보안장비 수요 기관들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성능 인증을 받은 외산 장비를 수입해 사용해 장비 성능 수준 등을 해외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유지·보수 관리에도 많은 비효율이 발생했다. 그러나 센터를 통해 국내 항공 보안 여건에 맞는 장비의 생산·보급을 촉진,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전 확보에도 일조하는 것은 물론, 항공 보안 장비 유지·보수(AS) 등 관리 효율성과 신뢰도의 향상도 기대된다.

유상우 KTL 항공국방신뢰성센터장은 "센터는 국내 보안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이라며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보안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TL은 이미 다음을 준비 중이다. KTL은 이미 지난해 7월 항만, 8월 철도 보안장비에 대해서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돼 보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글·사진 서천=노승길 기자 noga813@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첫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 평생 현역시대 제2직업 가이드

# 'Lifetime Job'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 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치면 구석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dice@11pm>의 첫 번째 이야기, "Lifetime Job"**  
 중장년이 원하는 실제 은퇴 시기는 73세. 그렇다면 70세까지 당신의 일거리는 준비되었나요?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는 첫 번째 이야기로 일거리에 대한 필수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의 제2직업, 평생의 일거리를 마련해 보세요.

**이투데이퍼낸서 | BRAVO**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86쪽 | 16,000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일	상	의	금	융	에	서
일	생	의	금	융	으	로

제2의 삶을 위해  
 견뎌야 하는 용기의 무게도  
 농협금융과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힘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 “AI혁명 시대, 반도체 통해 기여하는 회사 만들 것”

##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4월부터 카이스트·연세·서울대 ‘지속가능한 미래’ 주제로 강연 “행복은 결과물이 아닌 과정... 개인 행복해야 회사도 함께 발전”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DS부문장)이 5일 서울대에서 ‘꿈과 행복의 삼성반도체,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근 산업은 인공지능(AI)이라는 변곡점에서 있습니다. 반도체를 통해 큰 기여할 수 있도록 회사를 만들어보는 것이 꿈입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사장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연세대·서울대 등 세계 대학교를 방문, 강연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누차 강조했다.

경 사장은 지난 4월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6월 연세대학교, 9월 5일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행복의 삼성반도체,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이 대학 오프라인 강연에 직접 나서

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삼성전자 반도체가 인재 육성과 확보에 절실하다는 얘기다.

경 사장은 대학생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의 미션과 비전, 구성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의 노력 등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경험을 통해 행복은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있다”며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면 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꿈은 구

성원이 행복하게 일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그간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많은 구성원과 함께 일해온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끔 어려(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행복은 어떤 누구의 얘기여도 포용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며 “구성원 스스로 일하며 인정받을 때, 또 이를 바탕으로

로 도전하고 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 사장은 “개인이 행복해야 개인과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려면 그에 맞는 필요한 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필요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외에도 경 사장은 강연에서 반도체 업계의 트렌드를 제시했다. 반도체 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AI)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클린테크 등을 꼽았다.

경 사장은 지난 5일 서울대 강연에서 “앞에 있던 혁명의 파도가 컴퓨터와 인터넷이었다면 다음 파도의 구간은 이런 기술인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변화처럼 앞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몇 배로 (빠르게) 변화가 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회사가 지속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며 “앞으로 미래를 구현하는 회사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김성현, 포티넷 챔피언십 준우승 PGA 투어 개인 통산 최고 성적

김성현(사진)이 미국프로골퍼(PGA) 투어 포티넷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18일(한국시간) 김성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의 실버라도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기록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김성현은 우승자 사히스 시갈라(미국)에게 2타 뒤진 2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성현은 우승자 사히스 시갈라(미국)에게 2타 뒤진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준우승은 김성현이 PGA투어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다. 김성현은 2022시즌 PGA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에서 신인상을 받고 2022-2023 시즌 PGA 투어에 데뷔했다. 그는 데뷔 후 3번째 대회였던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공동 4위에 올라 기대를 모았다.

경기를 마친 김성현은 “가장 길게 느껴진 한 주였다.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좋은 생각과 마인드로 임하려 했다”면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플레이한 것 같고 결과도 만족한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hyowon@

##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2개국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

부영그룹의 우정교육문화재단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2개국 83명에게 장학금 약 3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만 26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화제가 된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이 교육장학 사업을 목표로 2008년 설립,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으로 유학온 해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2023년 2학기 포함)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2개국 출신 2366명의 유학생들이 약 93억 원에 이르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튀르키예 출신 게르첵 베를은 “한국의 높은 물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유학을 중단할 뻔 했으나 우정교육문화재단의 장학금제도 덕분에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CJ대한통운 ‘미래기술 챌린지’ 서울과학기술대 팀 대상

CJ대한통운은 1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채용 연계형 물류기술경진대회 ‘미래기술 챌린지 2023’ 시상식(사진)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회째인 미래기술 챌린지엔 271개 팀 602명이 지원했다. 예선을 통과한 10개팀이 본선에서 겨뤘 심사 끝에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3팀 등 총 6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비전을 활용한 스마트 검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VCL’ 팀에게 돌아갔다. 대상을 수상한 임성환 씨(서울과학기술대 전기정보공학과 4학년)는 “학교 수업과 달리 실제 현장의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어 전기정보공학 전공 학생으로서 유익



한 경험이였다”며 “개발자로서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해욱 기자 haewookk@·사진제공 CJ대한통운

##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인니서 주거환경 개선 봉사

LG에너지솔루션은 10-15일 국제 주거복지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인도네시아 카라왕시 와자나야 마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 활동(사진)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50명은 현지 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터 다지기, 골조 작업, 벽돌 쌓기 등 개보수 건축 활동을 펼쳤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와자나야 마을은 학교와 의료 시설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주민 대부분이 대나무나 짚 등으로 만든 주거 시설에서 생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월부터 한국 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이번 첫 해외 봉사 활동을 준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구성원들에



게 진정성 있는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 ‘봉준호의 페르소나’...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

원로 배우 변희봉이 1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1세.



18일 유족에 따르면 변희봉은 이날 췌장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고인은 앞서 2017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암이 재발해 투병을 이어오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942년생인 고인은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1965년 MBC 2기 공채 성우로 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연기로 발을 넓혀 드라마 ‘전원일기’ ‘제1공화국’ ‘은장도’ ‘엄복동’ ‘남자의 계절’ ‘한중록’ ‘왕과 비’ ‘제국의 아침’ ‘하얀 거탑’ ‘불어라 미풍아’ ‘동네 변호사 조동호2:죄와 벌’, 영화 ‘국화꽃 향기’ ‘시실리 2km’ ‘더 게임’ ‘초능력자’ 등에 출연했다. 오렌기안 연기자

로 활동한 그가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주로 ‘악역’이었다.

배우 변희봉을 재발견하게 한 것은 봉준호 감독과의 인연이었다. 봉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로 인연을 맺은 고인은 이후 ‘살인의 추억’ ‘괴물’ 등에 출연했다. 특히 영화 ‘괴물’로 2006년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남우조연상, ‘디렉터스컷 어워드’ 올해의 남자배우상 등을 받았다. 또 봉 감독의 영화 ‘옥자’를 통해 연기인생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 방문하기도 했다. 고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 각계에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후 12시 30분이며 장지는 서울 흑석동 달마사 봉안당이다. 황효원 기자 hyowon@

## 부음

### 중견탤런트 노영국, 심장마비로

KBS2TV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에 출연 중이던 배우 노영국(본명 노길영)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효심이네 각자도생’의 흥보대행사 블리스미디어는 “오늘 새벽 고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이날 밝혔다.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7기로 데뷔한 노영국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 ‘여명의 눈동자’, ‘사랑만 할래’, ‘무신’ 등의 작품에서 연기 활동을 펼쳤다. 배우 서갑숙과 1988년 결혼했으나 1997년 이혼했다. 이후 2006년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

빈소는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낮 12시 20분 진행 된다. 황효원 기자 hyowon@

▲김정순 씨 별세, 이홍구(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 씨 모친상 = 1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0일 오전 7시, 02-3010-2000

▲박분서 씨 별세, 조동범·명순·동영·현순·동울(제일기획상무·프로농구 서울 삼성 단장·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 단장)·동현 씨 모친상, 최창식(전 ETRI 사업개발실장)·이재완(희림건축 전무) 씨 장모상 = 18일, 경북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30분, 054-634-1444

▲이정대 씨 별세, 이용진 씨 부친상, 조옥상(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협력부 수석위원) 씨 장인상 = 18일, 대구전문장례식장 108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053-961-4444

▲최정희 씨 별세, 김수영 씨 모친상, 정동호(브릿지경제신문 광고국 부국장) 씨 장모상 = 18일, 원당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0일 오전 08시30분, 031-965-4444

## 신협, 아시아신협 포럼·총회 참석 “포용금융, 국제 연대·협력 필요”



신협중앙회는 ‘2023 아시아신협 포럼 및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연차총회’에 참석해 미래사회 생존 방안으로 디지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협 멤버십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8일 밝혔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 신협중앙회는 한국 신협을 대표해 참석했다.

김운식(사진) 신협중앙회장은 “전 세계에 경기불황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정신을 기반 신협 본연의 국제적,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아시아신협 회원국 모두가 포용금융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다 함께 잘사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jsww@·사진제공 신협중앙회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및 파견 △정책관리팀장 장용희 △평가관리팀장 방준희 △규제협력과장 이덕희 △지속가능발전팀장 지시향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평가과장 파견 김령석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강용석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재채용국장 김성연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김은이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장 문일근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이은

◆한국연구재단 ◇승진 △감사실장 서형관

조동근 칼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괴담선동에 대한민국의 발흥한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괴담선동의 '기대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카더라' 식의 괴담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단숨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하게 되면 개연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된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다.

괴담의 원조는 좌파 환경단체 및 일부 교수들이 벌인 '인신공황' 건설반대 괴담이다. 1987년 노태우 후보의 6·29 선언은 '신의 한 수'였다.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분열은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연결됐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장출 실패의 열패감을 드러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찾아낸 묘수가 '안전을 방패막이'로 한 괴담이다. 껌별 퇴적층의 다양한 특성으로 침하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

려워 할수록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괴담이다.

인천 국제공항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괴담에 대한 사고는 고사하고 유감 표시도 없었다.

광우병 파동은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인가'라는 비틀거리는 미국 소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진행자는 칼슘 부족으로 '주저앉는 소'(downer)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날조했다. 그리고 딸이 광우병에 걸려 숨졌다며 눈물짓는 흑인 어머니의 정제불명 인터뷰가 장시간 이어졌다.

MBC는 '방송국 폐쇄가 합당한 중대 범죄'를 범했지만 어떤 처벌도 없이 넘어갔다. 뼈아픈 대목은 그렇게 해서 '인론마저'도 '아니면 말고'가 용인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권위 있는 각계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PD수첩 사태를 시작부터 끝까지 낱알이 조사해 백서(白書)에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2016년 12월 당시 문재인 후보는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보도되었다. 후보의 눈물은 그 자체가 정치적 시나리오이며 메시지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치열한 논쟁 없이 '판도라' 영화 한 편

으로 대체했다. 후보 자신이 문화의 힘을 매개로 '원전사고 괴담'을 퍼뜨린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5년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일감정과 핵 공포'를 지렛대로 후쿠시마 원전 괴담을 퍼뜨렸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설령 방류했다손 치더라도 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는 세계가 공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장마철에 공장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외교적 마찰만을 부를 뿐이다.

인간은 유인(誘引)에 반응한다. '정권의 목숨줄'을 끊겠다고 덤빈 광우병 괴담을 제대로 처벌했었다면 그 후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괴담선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괴담선동의 이익이 작고 그 책임을 물어 처벌과 비난이 크면 괴담선동은 사라진다.

손에 잡히는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은 윤 정부를 타격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유단은 고스란히 우리 어부들이 맞았다. 어부들이 본 피해를 계량해, 최초 발설자 내지 정파를 추적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사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야심만만 밤에 파일을 삭제하려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탈원전' 범죄를 단죄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가짜뉴스 창궐 차단을 위해서도 괴담선동에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니면 제2의 김대업이나 나올 수도 있다.

## 카더라선동, 순식간에 대중 장악 기대수익 커 끝없이 확대재생산 엄정·무관용 대처만이 재발막아

류 흐름상 수년이 걸리는 데, 우리나라 바다가 곧 오염되는 것으로 날조했다. "부뚜막의 소금도 어떻게 하나"까지 동원됐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외중에도 "윤 정부가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창씨개명은 '반일감정'을 불러내는 통로이다. 이재명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 사춘기 성조숙증이 뭐길래?

"우리 딸이 7세인데 벌써 가슴 멍울이 나왔어요. 정수리 댘새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마에 여드름이 나고 요새 성격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마냥 아기인 줄 알았던 아이에게 얼마 전부터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요즘 성조숙증이 많다던데 우리 아이도 성조숙증인가?

최근 외래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사춘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방문한다. 사춘기는 인간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 양면으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사춘기 시기에는 남녀의 뚜렷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며, 수정 능력이 갖추어진다.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아이들의 기분이 더 자주 빠르게 바뀌기도 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한다. 부모님들도 이 시기의 아이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사춘기는 어디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발달 단계이다.

### 세계적으로 사춘기 발현 연령 낮아져

사춘기 변화는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데서 시작한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생식샘자극호르몬에 의해 난소의 에스트로젠과 고환의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며 변화가 나타난다. 성호르몬에 의해 여아에서는 유방과 음모, 난소와 자궁이 발달하며, 초경을 하고, 남아에서는 고환이 발달하며 정자가 생성된다. 성호르몬은 성장 연골에 영향을 주고 간접적으로 성장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사춘기 급성장이 일어나게 한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사춘기 발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사춘기의 시작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021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여아의 초경 시기가 15년 동안 0.4년 빨라졌다. 사춘기가 빨리오는 성조숙증의 유병률 역시 국내 역학연구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조숙증의 기준은 여아 8세 미만, 남아 9세 미만에서 사춘기 발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추성 성조숙증이란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샘 축이 일찍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성조숙증을 말한다.

### 과학세상

이로 지  
이대목동병원 교수  
소아청소년과



성조숙증이 걱정되어 병원에 내원하면 사춘기 단계를 진찰하고, 이른 나이에 사춘기가 시작된 소견을 보이는 경우 엑스레이 사진을 통한 골연령 측정과 호르몬 자극검사를 함께 고려하여 성조숙증을 진단하며 다른 원인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골반 초음파를 함께 시행하여 자궁의 길이 및 난소의 부피를 확인한다. 대부분의 성조숙증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6세 이하 여아 그리고 남아에서는 뇌병변으로 인한 성조숙증이 동반될 수 있어 뇌 MRI를 시행한다.

중추성 성조숙증 환자에서 치료할지 여부는 아이의 나이, 사춘기 진행의 속도, 키 성장 속도 및 골연령 진행 속도에 따라 결정한다. 성호르몬에 일찍부터 노출되면 성장판을 일찍 닫히게 만들어 결국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키에 비해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작아진다. 또 남들보다 신체가 빨리 발달하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여아의 경우 이른 초경이 불편함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치료의 목적은 사춘기 발달을 또래와 맞추고, 최종 성인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아이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치료 목표에 대하여 부모, 아이와 상의하며 치료할지 혹은 주기적으로 관찰할지 결정하게 된다.

### 성장판 일찍 닫히면 원래 키보다 덜 자라

중추성 성조숙증의 치료는 생식샘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작용제 주사이다. 치료 시작 후 사춘기 변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골연령 및 혈액 검사를 3-6개월 간격으로 하며 치료 효과 판정을 하게 된다. 약제의 장기적인 부작용은 대부분 소아청소년에서 심각하지 않다. 치료 종료 후 수개월 내에 사춘기 징후가 다시 나타나며, 성인기의 생식 능력도 정상 양상을 보인다.

사춘기는 누구나 겪고 반드시 거쳐 가는 발달 단계다. 적절한 시기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현대차 파업보다 무서운 '이것'

"사무·연구직 노조원들에게 정년 연장은 먼 얘기예요. 저희 입장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 한 연구직 직원의 토로다. 현대차에 입사하는 신규 직원은 자동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가입돼 조합원 신분을 갖는다. 사무·연구직 직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책임(과장급) 이상으로 진급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현대차 노조가 18일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현대차 단체교섭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한다.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젊은 연구직 인원이 대다수인 남양연구소에서는 높은 반대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을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연령대가 높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는 정년을 늘리는 게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러나 젊은 사무·연구직 노조원들에게 정년 연장은 먼 얘기다. 이들은 회사가 지난해 최고 실적을 낸 만큼 임금과 성과급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 사무·연구직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의 직군·세대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 기자수첩

강문정  
산업부



아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도 연구직 위주로 구성된 남양연구소 위원회의 파업 찬성률은 97.1%(투표자 대비 찬성)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임금과 성과급에 대한 불만을 투표로 표출한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2년 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현대차 사무·연구직 노조가 출범하기도 했으나 노조위원장이 퇴사하며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전통 제조업에서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핵심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곧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어쩌면 공장이 며칠 멈추는 것보다 연구소가 멈추는 것이 현대차의 미래에 더 부정적일지도 모른다. 회사와 노조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무·연구직의 불만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 이투데이, 말투데이

### ☆ 신용호(慎鏞鎬) 명언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교보생명그룹 창립자. 수차례 사업에 실패한 그는 한국인의 교육열을 사업화해 생로병사 중 유일하게 보험이 빠져 있는 '생' 부문에 교육보험을 끼워 넣어 상품화했다. 모든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사 지하에 '교보문고'를 설립했다. 그는 오늘 눈을 감았다. 1917~2003.

### ☆ 고사성어/독서삼매(讀書三昧)

독서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 '삼매(三昧)'는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경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도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로 산스크리트어 '삼마디(samadhi)'의 한자 표기다. 한 자어로 삼마지(三摩地)나 삼마제(三摩提), 삼매

지(三昧地) 등으로도 음역했다. 삼매에 빠지면 옆에서 벼락이 쳐도 모르는 정도이고 삼도(三到)의 경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심도(心到), 안도(眼到), 구도(口到)를 가리킨다. 즉 마음과 눈과 입을 함께 기울여 책을 읽으라는 것이다. 독서 삼매경에 빠진다는 것은 독서에 푹 빠져들어 다른 것에 정신이 가지 않는 마음의 경지를 가리킨다.

### ☆ 시사상식/최초제시금리(IPG)

IPG는 Initial Price Guide의 줄임말.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사가 채권을 최초로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리다. 일반적으로 발행사는 유통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을 기초로 가격(금리)을 정한다. 기업에서 달러채를 발행하는 경우 IPG는 동일 만기의 미국 국제 금리를 지표로 삼고 신용 스프레드를 더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美·EU가 빅테크 규제에 나선 까닭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독점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먼저 칼을 빼 든 곳은 EU다. 디지털 반독점법을 발동시켜 빅테크기업들이 그 안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 미국도 이번 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이달 내로 아마존을 제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만 해도 반기업적이라며 미국의 친기업 사례를 들며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머쓱하게 만든다.

사실 미국은 친기업 국가가 아니라 친시장 국가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거대 기업의 전횡에 대해 미국처럼 반발하는 나라가 없었다. 대표적 사례가 1911년 록펠러의 강제 분할이다.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이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던 정유사들을 인수해 미국 석유사업의 90%를 차지하자 미국 정부와 법원은 록펠러를 34개 회사로 강제 분할했다.

1982년에는 전신전화업종을 독과점하던 벨 시스템을 해산하고 벨도 회사로 분할했다. 199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에 익스플로어를 번들링(묶음판매)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기업분할을 시도했다. MS가 익스플로어를 번들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미국은 독과점이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국가적인 손해를 입힌다고 본다. 실제로 록펠러의 기업분할로 엑슨모빌, 쉘브론 등 여러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탄생했다. 전신전화업종에서 벨시스템 해산으로 여러 통신회사가 생길 수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어 번들링 제재로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가 생겼다.

친기업이 아닌 친시장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깔린 미국과 EU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칼을 빼 들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자연독점 시대였다. 기존에 없던 기술과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런 경우는 미국이나 EU는 제재하지 않았다. 빅테크 기업들이 규모가 끝없이 커지면서 제품과 서비스 생산단가가 낮아져 후발기업들의 시장진입이 불

## 데스크칼럼

설경진  
총소중견부장



가능해졌지만, 고객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고객이 서로가 득이 되는 이상적인 형태가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커머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SNS 각각의 빅테크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광고, 클라우드, 인공지능(AI)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 서로 중복되는 분야가 생기면서 선진국에서는 독점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주의자들은 독점이더라도 소비자가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시장적인 미국

등 선진국 정부는 고객에게 싼 가격을 제공해도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는다면, 반시장적이고 반독점 대상이라는 확장된 개념

## 경쟁기업 진입 막는건 반시장적 EU, 반복위반 땀 사업해체까지 '공정경쟁 보장=국익' 확인케해

이 확고하다.

EU는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사 진입을 막는 행위를 하면 글로벌 전체 매출의 10%, 반복 위반 시 사업해체 명령까지 내리겠다는 법안 효력을 발동했다. 미국은 구글에 대해 검색과 나머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아마존에 대해서도 마켓플레이스 판매업자들에게 아마존물류서비스를 강요해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기업분할해야 한다는 소송을 이달 말 제기한다고 한다. 구글, 아마존 둘 중 하나라도 반독점 판결이 나오면 해당 기업들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 반면 후발 경쟁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선진국의 반독점 제재 대상 중 우리나라 기업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 씁쓸하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혁신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사설

#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범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약 1년 동안 재판을 잡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전합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어제 나온 최종 결론으로 미루어 이번 사건을 전합으로 넘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새 판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넘기는 것이 상례 아닌가. 시간을 끄는 데 불과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은 결국 4년 임기 종료를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래서야 뭘 실효성 있는 판결인지 알 길이 없게 됐다. 뭘 형사사법이 이리인가.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 6년은 석연치 않은 행태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키운 암

울한 시기로 기억되기 십상이다. 재판 속도에서부터 그랬다. 김명수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맞는 형사사건 재판의 처리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려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 2017년 대선과 관련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2021년 7월에야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무려 4년 2개월 만에 내놓은 판결이다. 김명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토록 오래 뜸을 들여 확정된 것이다.

유사 사례가 무수히 널려 있다. 2020년 1월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4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최강욱 사건'의 몸통 격인 '조국 사건' 역시 아직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까지 3년 2개월 소요됐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무소속) 사건은 기소 후 1심 판결에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들 사건 모두 종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法諺)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판판으로 돌아갔다.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판결을 일삼고 재판 기일도 고무줄처럼 늘려 결국 신뢰의 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 '지역특화 일자리'로 도시부흥을

## 정책발언대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합계출산율이 지난 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둔화·세수 감소 등 인구감소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약 60%로 무주택 부부보다 10% 높았다. 전국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인구 18%가 거주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답은 이미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은 집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

### 지역 일자리 있어야 인구분산도 성공

정부는 196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연이어 내놓았지만 지금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법 제1조)'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끝내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는 점이다. 강화·웅진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시달리고 있다. 많은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초과밀 지역과 소멸지역이 공존하는 형태가 됐다.

특정 지역을 억제해 다른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이다. 지리적 관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누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단추는 정부 지원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특화 일자리'다. 도심 집중이 큰 사회문제인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딱 2년간 도쿄의 인구가 초과 전출한 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 이후 지방에 인프라를 대거 구축하자 지방에 돈이 돌며 도쿄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재원을 통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 때 40조 엔(약 360조 원)을 돌리려던 정부 투자가 절

반으로 감소하자 도쿄로의 전입이 다시 늘었다.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인구분산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제한적인 효과에 그쳤다. 고용 창출이 일어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막연한 지방창업 및 기업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천수답과 다름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맥락 없는 정부 지원이 아닌,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 과거 부산·광주·대전 등 거점도시가 성장한 전략과 비슷하다. 더 미시적으로 접근할 뿐이다.

### 공공기관 이전 제한적 효과 교훈실감

예를 들어, 인천 중구 영종도의 경우, 공항을 중심으로 MRO(항공 정비)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중구 원도심의 경우, 인천 내항이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강화는 영종, 서울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웅진은 환경 요소를 활용한 관광과 해양대학 유치 등이 기회 요소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이루기 위해선 더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필자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GTX-D Y자 노선과 인천역 KTX 등 산업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교통 역시 확충돼야 한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여전히 옥죄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다. 지역 특화 일자리 중심의 도시 부흥은 인천에서 시작될 것이다.

## 마음상담소

## 생명의 시작도 끝도 가족

나라마다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죽음의 조건을 조사하였다. 미국에서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 일본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안락함'을 첫째로 뽑았다.

우리나라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첫째로 뽑았다.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죽음의 조건은 '가족'이다.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일까. 본인이 살던 집에서 가족들의 품에 둘러싸여 마지막 눈을 감고 싶은 것은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1인 가구가 40%를 넘어섰다. 가족이 말기 환자를 집에서 케어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이 삶의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보낸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설은 아직 많은 이들이 편견이 있고, 공급도 충분하지 못하다. 입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병원 중환자실은 아침저녁으로 30분씩 하루 두 번만 면회를 허용한다. 따로 임종실이 없는 탓에 처치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흔하

다. 가족들이 임종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없다. 죽음 이후에도 유산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일어나, 절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는 고독사도 늘고 있으며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의 품에서 죽을 수 없다. '가족과 함께하는 죽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를 자식들의 불효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 해체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동성애 가족 등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가족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좋은 죽음은 혼자서 불가능하다. 가족에서부터 출발한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생활을 원조하는 활동이며 죽음 준비 역시 포함된다. 죽음 복지는 가족복지에서 시작한다. 생명의 시작이 가족이듯이, 끝도 가족이어야 한다.

강원남 행복학 죽음 웰다잉연구소 소장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l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Financial Networks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 30년의 동행, 함께라서 더 기대되는 내일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화재는 30년 동안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활동할 수 있도록  
멋진 사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30년만큼 앞으로도  
다 함께 걸어가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삼성화재**